

성심당은 大田의 文化입니다.



튀김소보로는 KTX를 타고~

전국 10개 KTX특송역, KTX특송으로 성심당 빵을 맛보세요.



**튀소 탄생 35주년 기념
고객감사 KTX특송 무료배송!**

- 2015년 12월까지 2만원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 KTX 특송: 1588-8069 / www.sungsimdang.co.kr



1956 以來 · 大韓民國 · 大田

2015년 여름 계간 48호

평신도



평신도

인사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 만남 하창식 부산평협 회장·김운회 주교 이야기 봉헌 생활의 영성·심리 상담·평신도 연구·문화영성 산책 나눔 한국가톨릭의사협회·복자들의 영성 배움 인문학 강좌·영화 속 '인간과 세상'·성화에 얽힌 이야기·로마서 특강·아가다의 음악편지 소식 교구평협·회원단체·양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Editor's Letter

에디터 레터

그리스도의 평화!

때 이른 무더위로 싱그럽고 따사로운 봄날이 실종한 듯합니다. 또 메르스의 창궐로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고 인심도 흉흉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국에 계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께서 그간 별고가 없으신지 안부를 여쭙지 않을 수 없군요. 곧 8월이 되면 지난해 여름 우리의 가슴을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타오르게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이 1주년을 맞습니다.

'늑대의 시대에 양처럼 살라'는 방한 당시 교황님의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평신도들에게 자비와 용서로 정의를 넘어서라는 당부입니다.

복녀 마더 데레사도 "기도는 깨끗한 마음을 주고, 깨끗한 마음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봉사로 열매를 맺습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황님의 당부와 복녀의 가르침을 되새김질해 보면 남북으로, 동서로, 세대와 계층별로, 보수와 진보로 갈기갈기 찢긴 우리 사회를 일치와 통합으로 이끌 방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자기주장에 앞세워 대립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열고 이웃의 결핍을 채워 주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게 해결책이겠지요.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평신도' 여름 호는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정하여 꾸며 봤습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평협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재능과 지식으로도 불우한 이웃을 찾아나서 사랑하자고 제안하셨고,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님께서도 이에 맞갖은 말씀을 인터뷰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평신도 에세이로 요셉의원에서 치과의사로서 봉사하시는 이충규 요셉 성심치과의원 원장님과 간호사로서 봉사하시는 김순점 데레사 자매님, 남한산성 성지성당에서 순례자 안내봉사를하시는 이영애 데레사 자매님, 영명축일인사와 묵상 글을 매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임종심 마리아 자매님이 소회와 보람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강도나 중요성에 따라 생리→안전→애정→자기 존중→자아실현 5단계로 배열하고, 인간은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학설을 복음적으로 나름 해석해 봅니다. 우선 인간이라면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리 욕구와 위협이나 고통에서 회피하는 안전 욕구는 충족시켜야 하겠지요. 애정이나 자기 존중에 관해서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더 강하게 충족시킨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오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봅니다. 출세하면 무조건 행복해지리라 여겨 타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까지 짓밟으며 경쟁에 몰두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불륜과 부정부패, 탐욕, 권력 욕, 명예욕에 관한 기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지요. 반면 평생 아껴 모은 거금을 이웃을 위해 쾌척하시는 미담 기사를 접하면 자아실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행위는 하느님이 인간을 지으신 뜻에 따라, 상선벌악에 대한 믿음으로, 강생구속자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자기를 완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갈라 5,6)



편집장 김선동 루카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 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5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00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권미영	모니카	teletong@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울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울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송애련	젼마	ae4789@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 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 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평신도

2015년 여름
계간 48호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권지영 테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명백훈 프란치스코,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편집장 김선동 루카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표지 모델

표지모델 두 학생은 방예솔 제네로사(반포교 1년)와 박정민 대건안드레아(이화교 1년)로 현재 서울대교구 무악동 선교본당에 다니며 무지개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학생은 무악동 선교본당이 설립되던 해에 태어났으며,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세계잼버리에 참가할 예정이며 두 대원 모두 범스카우트(스카우트 진급 제도에서 가장 높은 급)를 준비하고 있는 무궁화 스카우트 대원이다. 방예솔은 1866년 병인박해 때 해미순교지에서 순교하신 방영창 안토니오 순교자의 5대 손녀이다.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김운회 주교 인터뷰 / 배봉한

12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서 / 권지영

휴식

15 공소의 여름 풍경, 신성리 공소 / 김규현

이야기

16 교회 톨아보기 / 서상덕

20 봉헌 생활의 영성 / 안 프란치스코

22 심리 상담 / 조은영

25 만화 세상 / 서원만

26 평신도 연구 / 변진홍

28 핫이슈 / '답게 살겠습니다' 교육팀

30 말씀달력으로 복음 나누기 / 임종심

32 보물찾기 / 이영애

34 요셉의원 주방 밥 냄새를 맡으며 / 이충규

36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 김순점

38 문화영성 산책 / 김민수

나눔

42 평신도가 된다 / 가톨릭의사협회

44 복자들의 영성 / 김길수

배움

48 인문학 강좌 / 김문태

51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 황인수

56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60 성화에 얽힌 이야기 / 고종희

63 로마서 특강 / 임숙희

66 아가다의 음악편지 / 양인용

소식

68 교구평협·회원단체

80 평신도 양서 / 신동수



회장 인사말

나는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란 하나도 없는 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착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부터 멀리 있게 하는 '애착'인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애착'을 갖는 사람이 부자란 뜻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루카 6,38)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단골로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한 젊은 거지가 있었다.

어느 집이나 모두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인심이 좋아서 집집마다 그에게 밥과 반찬을 모자라지 않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밥을 주시는 어머니들이 “젊은 사람이 일해서 먹고살지 왜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아?”라고 말하면서 눈을 흘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친구들을 꼬드겨서 그가 늘 가지고 다니며 밥을 얻어 담던 깡통을 빼앗아서 쭈그러뜨렸다. 나는 그때 그가 보

였던 화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다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흔한 깡통 하나를 쭈그러뜨렸을 뿐인데 왜 그가 그렇게 살의를 품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왔는지를 정말 오랫동안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 답을 복음이 알려주었다.(마태 19.16~30, 마르코 10.17~31, 루카 18.18~30 참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다.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온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한다. 이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다. 부자인 그 청년은 자기 재산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까지 말씀하신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그 거지에게 우리가 쭈그러뜨린 깡통은 전 재산이었고 거지는 어린이들에게 살의를 품을 만큼 그 작은 재산에 애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떠난 청년처럼 부자가 아니라도 자기 것에 애착을 품고 나눌 수 없을 때 그가 누구이던 이미 그는 천국에 가기 어려운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 여쭙는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애착을 끊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과 아낌없이 나누어야 할 것이다.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어떤 이유로든 배곯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울해 있는 형제를 위해서 웃음을 나누는 것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분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자기 시간을 나누어 함께 있어 주고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모두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을 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될 것이다.

한 학생이 특별히 수학을 잘했다. 그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친한 친구 하나가 수학을 못해서 자기 부모로부터 받는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면서 도움을 청해왔었다.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하지 못하는 수학실력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했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재미있는 과목인지 왜 지금껏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구도 수학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신은 선생님께서 ‘수학의 영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학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백 배로 갚아 주신다고 했는데 셈해보면 천 배도 넘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나누며 살 것입니다.” 참으로 이 어린 학생은 대견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란 하나도 없는 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착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부터 멀리 있게 하는 ‘애착’인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애착’을 갖는 사람이 부자란 뜻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역시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 재산과 학식이 주는 한계를 넘어서 이웃 형제를 찾아 나서며, 그를 사랑하려는 운동임을 잊지 말자. 그 뜻하는 바는 조금 다르더라도 소동과의 적벽부 한 구절을 소개하련다.

“세상 모든 사물, 각각 임자가 있는지라, 내 것이 아니면 터럭 하나라도 갖지 마라!
하지만, 강가에 부는 청풍과 산간의 명월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으니.
귀로 들으니 내 소리요,
눈으로 보니 내 그림이라.
가져도 금하지 않고, 써도 닳지 않으니.
하느님 주신 무진장 선물이라!
이 은총, 어찌 그대와 함께 한껏 누리지 않을 쏘냐?”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하창식 프란치스코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회장 직분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다른 분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의 자캐오처럼 불품없는 모습이지만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는 주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하창식 프란치스코 형제가 2012년 3월 부산교구 평협 회장에 취임하며 했던 인사말의 한 대목이다.

부산교구 평신도들의 얼굴이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과학자인 하창식 회장(59)은 인터뷰 내내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빼닮은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한순간을 만났어도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사람, 하창식 회장이 꼭 그런 분이였다.

☪ 부산 평협이 그동안 주력했던 사업은 무엇이었는지요?

지난 6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행해 온 도보성지순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과 그때 시복된 124위 중 우리 부산교구 사상 처음으로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두 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시복을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수영장대성지에서 오른 대순교자성지까지 14km를 묵주기도를 바치며 교우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정을 담은 도보성지순례백서를 발간하였지요. 이런 정성이 지난해 124위 순교선조들의 시복이 앞당겨지는 데 큰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은, 자매님 세 분은 6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순례 길을 걸었고, 김경수 토마스 씨 가족은 3대가 거의 빠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교우들과 함께 걸었고요.

☪ 올해 어떤 일들을 해 왔고, 하반기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는지요?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의 빠른 시복을 청원하며 새롭게 도보성지 순례 길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각지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삼랑진역에 집합한 뒤 오전 9시부터 김범우 묘소까지 7km를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며 걷고 11시에 성모동굴성당 미사로 도보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인 하창식 회장은 고분자공학 분야 저명한 과학자이다.

성지순례를 마치는 여정입니다. 기차 샷, 지하철 샷, 김밥 해서 약 1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새로운 도보성지 순례 길에 참여한 교우들이 무척 행복해하십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며 모두 기뻐하면서 시복시성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한 우리교구 사목지침이 ‘본당 재탄생을 향한 새 복음화’ 3년차로 ‘문화복음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교구에서 50권의 신심서적을 추천하여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생활문화 복음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 3년째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저 은총의 연속이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를테면 제 임기 중에 이

땅에 찾아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직접 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구사상 처음으로 두 분 복자를 모시게 된 것만 해도 너무나 크신 주님 은총이지요. 지난해 시복식 준비로 우리 교구에서도 5월 도보성지순례 마감행사, 6월 시복기념 학술강연회, 8월 시복식, 9월 시복감사행사 및 미사 등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각 본당에서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시복관련 행사 준비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지난해 교구 평협 회장에 연임되어 당황하긴 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모든 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쫓 빼닮은 삶을 살고 계시는 교구장 황철수 주교님의 소탈하고 배려심 깊은 이끄심과, 우리 교구 평협을 지도하시는 손삼석 총대리주교님의 자상한 이끄

심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이 봉사해 왔 습니다.

☞ 평협 회장을 맡으신 이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오신 것은 무엇인지요?

본래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협 회장을 맡으면서 혹시라도 직분에서 우리나라는 교만이나 거드름 같은 모습이 드러날까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게 있을까봐 늘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기도생활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장을 맡은 이후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회장이 되기 전엔 주일미사만 빠지지 않아도 독실한 신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 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된 이후로 매일 미사도 가능한 한 자주 참례하려고 하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빠짐없이 바치려 애쓰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장 직분을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저명한 교수이자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도가 하느님을 만난 이아가 자못 궁금합니다.

저를 가톨릭신앙으로 이끄신 것은 성모님입니다. 저는 예수쟁이하면 펄쩍 뛰며 멀리하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났 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원(KAIST) 유학 시절, 서울 신당동 성당에서 영세했는데, 그때나 그 이후로나 제 친가 쪽으로는 제가 유일한 신자일 정도였습니다.

차남이니까 망정이지, 제가 장남이었으면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인데도, 대학원 시절 논문 연구로 힘들어하던 제가 누구의 권유도 없이 제 발로 성당을 찾게 된 것은 온전히 성모님의 이끄심 덕분입니다. 그때 저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평화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 석사 학위 논문은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써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평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할 것 같아,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묵주기도를 하 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묵주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모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입니다.

과학적 재능이 정말 부족한 제가 일류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1.5류 과학자쯤으로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오신 하느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수로서 정년이 6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의 인생 역정을 잠깐 생각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수행하여 온 연구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는 저에게 그 연구를 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그 마음 그대로 느껴집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영세를 준비하면서 예비자 교리 수업 받던 그 6개월이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우연히 성당 문에 들어



지난 2월 28일, 부산교구 평협 회원들이 도보성지순례를 마치고 김범우 묘소 앞에서 함께했다.

선 바로 2주 뒤에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주 후에 예비자교리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1주일 내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주 조금씩 알아가는 성교회의 진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뒤에 이기락 타대오 신부님께 영세를 받았고, 3개월 만에 견진성사도 받았습니다. 예비자 교리 기간 6개월을 보내면서, “한쪽 문이 닫히면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것”도 그때 몸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 우문입니다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기쁜 삶일까요?

저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 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제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괴롭고,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 보니, 제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저

에게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보고, “아, 하느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제게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령,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교구 평협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이 맡겨진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평협 회장으로 선출되던 바로 그 시점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라는 직분이 생각지도 않게, 그야말로 ‘갑자기’ 맡겨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는 너무나 과중한 그런 직책들을 평소에도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신앙생활 중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은 묵주의 9일 기도입니다. 54일 기도를 바치고 나면 언제나 제 뜻대로가 아닌 하느님이 뜻하신 대로 어려움이 극복되는 체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늘 든든한 무기(?)가 되어 주는 묵주의 기도로 시련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 노력합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제 삶에서 닥치게 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저는 언제나 굳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주교 인터뷰

배려, 존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시다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김윤희 루카 주교(72세)를 5월 28일 춘천 교구청에서 만났다. 김 주교는 1973년 1월 8일 사제로 수품, 2002년 11월 21일 주교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사목하다가 2010년 3월 25일 춘천교구장에 착좌하였다.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해외원조와 대북지원을 위해 교회가 설립한 재단입니다. 카리타스 이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저는 주어서 기쁜 것보다 늘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눔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경,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이 없으면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자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경이나 사랑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지원 사업 실무 책임 기구로서, 전 세계 164개 카리타스 회원 기구를 대표하여 대북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카리타스는 정치, 종교, 문화와 상관없이 북측 동포들에 대한 사랑으로 긴급 식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6·25 전쟁 때라 구호물자를 많이 받았는데, “헬로, 기브미 쫘꼬레포.” 하고 미군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웃으면서 초콜릿을 툭툭 던져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를 쓰다듬고 코 흘린 얼굴을 닦아 주면서 초

콜릿을 쥐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없으면 어린이들도 받아먹으면서 욕을 해요. 인격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정말 진정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본당에서도 바자회나 나눔 행사를 할 때, 옷을 내라고 하면 입던 옷이라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잘 접어 포장을 해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경, 사랑이 담겨 있는 거지요. 북한이 물자를 받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마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고마워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이 담긴 나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받던 시절을 지나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네팔 지진이 아프리카 기아 난민이다 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카리타스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베푸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은 나눔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타스 지구 시민교육 교재 - 초등편」을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국 카리타스에서 펴낸 책을 번역했는데, 그리스도인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자라면 커서도 저절로 나누게 됩니다.

네팔에서 4월 25일과 5월 12일 두 차례 대지진이 일어나 네팔 인구 40%에 달하는 어린이 170만 명이 피해를 입고 9천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텔레비전 화면이나 뉴스에서 사라지면 금세 잊어버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자꾸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한국 주교님들이나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사진으로 찍어 외국으로 보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몰라서도 잘 못 돕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정심에서 우리나라는 적선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선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네팔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기로 했는데 하고 걱정을 합니다. 네팔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여행을 못 가게 된 것부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사랑 하지만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신자들조차 무관심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해야 기본인데 너무 무관심합니다. 신앙은 삶인데 신앙의 기본인 사랑이 우리나라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요즘 천당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고마워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이 담긴 나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에 '개인 입장 불가'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자세로 살면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기쁘고 보람 있고 저 사람과 함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교황님 말씀대로 무관심은 신앙인의 삶에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나눔을 배우는 일차적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한다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인간의 삶을 인간이 스스로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결국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 삶의 질이 다 망가졌어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더불어 사는 사회였어요. 우리는 9남매였는데 매일 밥 먹고 싸우고 그렇게 부딪치면서 깨졌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도 서로 협력하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요즘 혼자 크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 온갖 것을 다 투자하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커요. 어떤 어른들은 내 딸은 부엌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키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사는 데 생활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데 곱게 키운 것만 자랑해요. 그러니 온실 밖으로 나오면 말라 죽지요. 다 부모 탓이에요.

가정 안에서 깨지고 부딪치는 것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형제자매 간이기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니까 둥글둥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만 낳자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수술을 시키고, 인위적으로 산아제한을 했는데, 사람들이 교만이 극에 달해 바벨탑을 세우니까 하느님께서 치신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삽니다. 순리대로 가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서로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랑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사랑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먼저 살지 않고 가르치려 듭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왔는데 장바구니에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며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할까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라삐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물건을 샀던 가게로 가서 내 물건이 아니라며 돌려주라고 합니다. 아이한테 엄마의 정직함을 보여 주라는 거죠.

교육은 이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지혜는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아 깨닫는 것입니다. 보여 주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황님도 삶으로 보여 주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것도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해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사셨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 후에 외국에서 들어온 옥수수가루와 분유를 섞어 우유죽을 쑤어서 극빈자들에게 분배하는 성당의 급식소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수백 명이 한 끼 죽으로 하루를 버티는데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줄을 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민학교를 열었어요. 빈민 학생들이 600명이나 되었으니 엄청났죠.

아이들이 불쌍해서 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시던 자리에 교실을 지었어요. 중학교 과정인 고등공민학교도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본당신부님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학교를 그만 접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반학교로 가도 우유죽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들을 다 전학시켰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신부님의 한 말씀에 즉시 순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베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웠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어요.

춘천교구는 분단 교구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구장이신 장익 주교님 때도 북강원도에 연탄을 보내는 등 지원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지원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한삶위원회'라고 회관을 짓고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춘천교구로 와서 5년을 지냈는데 참 기쁩니다. 삶의 환경이나 질도 좋고 신자들도 순박합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커서 동선이 너무 길어, 본당이나 공소 방문을 다니려면 힘이 듭니다. 1년 6개월에 차량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공소나 본당 신자들의 순박한 모습에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주교님이 공소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신자들이 주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회의를 해서 집집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신자들은 신부님이나 주교님한테는 꼭 개를 대접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개를 못 먹어요. 신자들의 정성 때문에 조금 먹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개가 없으니까 도시에 살다가 주말에만 오는 집을 찾아가 집주인에게 주교님이 오시는데 개를 봉헌하라고 했대요. 황당했지만 동네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텃세에 밀려 날까봐 개를 잡았어요. 미사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남자가 눈물을 푼뚝 흘리면서 우리 수녀님한테, 지금 먹는 개가 어떤 개인지 아시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말마다 오면 자기도 안 쓰는 고급 샴푸로 목욕을 시킬 정도로 끔찍이 위하던 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부인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 주말에 남자가 개 목욕만 시키고 있으니 부인이 이 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보다 하고 다들 웃었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고 살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지금 오히려 나눔의 정이 줄어든 듯합니다. 그래도 공소에 가면 이렇게 순박하고 열심한 구교우들을 볼 수 있어 늘 감동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남아 있어 걱정인데, + 교우 여러분 모두가 여름철 무더위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서

유도그룹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때 이른 무더위에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6월의 오후, 본지 권지영 편집위원이 유영희(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유도그룹 회장을 만나러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았습니다. 유 회장은 현재 전국 가톨릭경제인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경기 화성 유도그룹 본사 전경.

유 회장을 처음 보는 순간 독특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신부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인터뷰 전 몇 차례 전화통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로 신부님과 통화하는 느낌 같은 것이죠. 알고 보니 그의 집안은 4대째 가톨릭 집안으로 7남매를 둔 부모님은 자식 중 신부와 수녀가 하나씩 나오길 바라실 정도였습니다.

유 회장은 광주 살레시오중학교와 살레시오고등학교를 나와 가톨릭대학을 졸업해 한때 사제의 길을 준비했었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유 회장은 경기 화성에 있는 본사를 찍은 홍보영상을 하나 보여 주었습니다. 5개 계열사가 모여 있는 곳인데, 마치 고급 리조트나 멋진 대학교 캠퍼스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성당처럼 생긴 건물은 도무지 공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 유도그룹은 어떤 회사인가요?

유도그룹은 제가 1980년 12월에 유도무역상사를 설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유도(옛 유도실업)으로 시작해 플라스틱 자동화화 합리화 부문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도썬스,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유도스타자동화, 패키징 제품 생산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페트윈, 유도로보틱스 등 현재 5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본사가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핫러너'라는 신기술을 접하면서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본사 앞에서 포즈를 취한 유영희 회장.
그는 1980년 12월 서울 동교동에서 유도무역상사를 설립했다.

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썼던 제 자서전의 표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 어디 계시는지요? 없어 보이는 길 따라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지금도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제의 길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유도그룹을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과거 광주가톨릭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신부의 길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시절 "다소 직선적인 성격이 성직자를 하기에 맞지 않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신부의 꿈을 접었습니다. 개성이 강한 저의 성격은 보수적인 종교사회와는 반대되는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신부가 되고 싶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13년 동안 준비했던 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니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했던 것이 "성(聖)과 속(俗)은 둘이 아니다."란 신학자 본 회퍼의 말입니다. 비록 신부가 되진 못했지만 하느님 말씀을 세상 안에 들어가 실천하면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접은 지 40여 일 만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

☞ 회장님에게 있어서 종교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판타지입니다. 인간이 신처럼 살겠다는 꿈을 이뤄가는 길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정치 조직보다 생명이 깁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죽음을 넘어 희망을 줍니다. 미지 세계의 길잡이가 돼 주고, 꿈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종교로 인한 손해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종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인간은 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제게 하느님의 말씀은 삶을 풍요롭게 했으며 저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언제나 희망 속에 살게 했습니다.



본사 생산제품 공장에서 유영희 회장.

하느님의 이런 말씀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저와 회사에 철학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회사 직원들에게 많은 정성을 들이도록 노력하는데 특히 직원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복리후생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회사 내에 드럼과 기타를 구비하고, 화성에 있는 공장도 공원 못지않게 조경과 주변 환경 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 신학교 시절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됐나요?

저는 늘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신학교에서 쫓겨나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던 며칠을 제외하곤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신에게서 놓여 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며 즐거운 삶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죄의식에서 풀려나 항상 신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이 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신학교 시절 아침에 일어나 묵상을 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하루의 삶을 다짐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저녁이 되면 고해성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스스로 정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사람이 됐다고 느끼려고 한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온 후 저는 그분께 'Ouo Vado, Domine?'(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고, 기업인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매 순간 삶속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제가 주말마다 손자 등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저는 서재에서, 일터에서 늘 그분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톨릭인으로서 그리스도 정신을 회사 경영에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로지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번 돈 모두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고, 지금도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회사에 제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회사 곳곳에는 '유도(柳道)의 길' (유도는 땅에 그 발을 내딛고 있으나 항상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유도는 인간의 길이며 정성된 삶의 장이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는데, 제 영혼이 회사 경영에 녹아 들어간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늘 영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직원들에게는 '혼(魂)을 녹이는 열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방침은 '인격경영'과 '정직투명' 경영입니다. 친인척이 없는 인성중시, 지방색이 없는 인재중시, 학력차별이 없는 능력중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소의 여름 풍경, 신성리 공소

촬영
김규현 바오로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신성(新城)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1882년경 천주교 박해를 피해 전주지방 신자 중 일부가 피란을 온 것이라고 한다. 신자들은 산허리에 화전을 일구어 담배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돌무더기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903년경 프랑스 신부가 부임하여 16년간의 포교활동을 하면서 부근에 기와 굽는 공장을 설립하여 여덟 칸의 성당과 네 칸의 사제관을 짓고 아래쪽에는 여섯 칸의 사랑채를 건축하였다.

주변을 마치 석성과 같은 견고한 돌담장을 쌓았는데 당시 조선정부가 천주교를 탄압하자 천주교 신자들이 관군의 기습에 대비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성당 건물은 없어지고 사제관에 해당하는 건물을 성당으로 활용하여 일요일에 신자들이 모여 공소예절을 드리고 있다.

이곳은 치명자 황석두 루카(1813~1866) 성인, 다블뤼 주교, 위앵 신부, 오 메트로 신부, 장주기 요셉과 이들의 순교 사실을 교회에 증언했던 황 마르타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기도 하다.

신성공소는 우리나라 초창기 한옥 형태의 성당 건축물로서 종교적 가치가 있다.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145-1

시기동 성당: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2동 239-3

전화: 063. 538. 0091

교회 톨아보기

프란치스코 교황과 평신도 - 늑대의 시대
양으로 살기

서상덕 스테파노 편집위원

복음화 여정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늘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써 늘 새로워져야만 한다. 현재에 안주할 때 복음에서도 멀어진다. 복음화의 길에서 펼쳐지는 사목의 주체는 교회 공동체와 평신도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다.



지난해 한여름 피약별이 내리쬐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의 감동과 열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달려간 충북 음성 꽃동네.

장애인들이 지내고 있는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아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

은 장면들이 다시 한 번 연출됐다. 교황을 맞은 장애아동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교황은 꽃동네 측의 거듭된 권유에도 의자에 앉지 않고 내내 서서 그들과 함께했다.

격식이 없어 유쾌했다. 쿨해서 더 감동적이었다. 손가락을 빨고 있던 갓난아기의 입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준 교황, 20년간 병상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오미현(리나·23) 씨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격려하던 교황의 몸짓 하나하나 사람들의 가슴에 화인으로 들어와 박혔다.

많은 이들이 '꿈같은 8월',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던 지난해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후 이 땅에는 가히 '프란치스코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뜨거운 열풍이 불어 닥쳤다. 그 열기는 지금까지도 이 땅의 대기를 달구고 있는 듯하다.

이 신드롬의 기미는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3년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

해외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언론들까지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된 기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도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이 된 듯하다. 교황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가 아니라면 아시아대륙에서, 그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와 관련된 소식을 어느 때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까지 '기이한 현상' 나아가 '기적'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해 한국 방문에서 쉬 지워지지 않는 장면 한둘씩은 가슴 속 깊이 품었을 듯하다. 방한 일정 내내 꼬박 교황을 따라다니다시피 했던 필자에게도 특별히 잊히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

방한 셋째 날이던 8월 16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성당에서 열린 '교황과 평신도 대표와의 만남'도 그 가운데 하나다. 토요일이던 이날 평신도 사도직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황이 특별히 강조한 게 있다.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여러분의 사도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교회의 사명 수행을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면발치에서지만 교황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지금도 어느 때고 그 장면을 떠올릴 때면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

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분명한 어조로 '여러분(평신도)이 하는 모든 일'이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완성시키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임박한 출정을 앞둔 장수들을 격려하는 듯한 교황의 모습에서는 비장함마저 풍겨왔다. 제자들을 돌씩 짝지어 파견(Missa)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러셨을까...

그 자리에서 평신도들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른 교황의 모습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평신도들에 대한 감사와 당부다.

특히 교황은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평신도의 활동을 높이 치하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기에 그의 말은 화인이 되고도 남을 만한 것이 됐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 증진이라는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도록 격려합니다.”

교황은 이날 평신도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하느님은
정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참 정의의
기초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과 함께
그것을
감싸고
능가한다

않다!”는 말을 되뇌었다.

지금도 외신 등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 교황의 말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 4월 11일 발표한 ‘자비의 희년’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도 교황은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로 정의를 넘어간다. 하지만 하느님은 정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참 정의의 기초로서 사랑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과 함께 그것을 감싸고 능가한다.”(21항)고 말한다.

교황의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다.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마태 19,16-22)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은 청년은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청년은 충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지닌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요즘 말로 ‘필요조건’은 갖췄을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부자 청년에게는 하느님께서 전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바로 회개의 은총이다. 하지만 이 선물은 하느님 은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분 은총에 마음이 열려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는 참 생명도 누릴 수 없음을 성경은 들려준다.

“부자 청년’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은 얼마나 다른가?”

교황은 “충분하지 않다.”는 언명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지냈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해 필자가 만났던 교황은 이 땅의 평신도들을 향해 ‘겸손하게’ 부탁하는 듯 보였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 증진이라는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교황의 언행은 낯설다. 더구나 코앞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교황을 직접 보고 나면 당혹감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이런 유의 당혹감이 밀려올 때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순간’이 아닐까.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을 취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았던 교황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듯 여겨지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결코 만족할 만한 현재에 있지 않음을 들려주고 있다.

교황은 나아가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일 때 ‘개인의 안녕’ (『복음의 기쁨』 제93항)만을 추구하는 ‘영적 세속성’이 교회를 갉아먹는다고 경계한다.



“영적 세속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93항)

실제 교황이 말한 ‘신앙의 가면’을 쓴 영적 세속성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재앙을 낳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적지 않은 평신도들이 현실에 안주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서도 이런 현실이 잘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4년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종교를 믿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는 물음을 던졌을 때 응답자 중 약 63%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반면에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이라고 응답한 수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백운철 신부(신학대학장)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오늘날 사회에서 누구나 늑대처럼 영악하게 살고자 한다. 하지만 교황은 골리앗과 다윗의 예를 들며 양으로 살라고 권고한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착한 목자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센 늑대가 되길 원하는 것 같다. 이유는 가지가

지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이들은 상처 입지 않으려,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그 정도 위세는 당연히 누려야 하기에, 자기 정도면 어느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니까….

결국 ‘내가 이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는 ‘본전 생각’만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이유들은 결국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교황은 오늘날 교회가 맞고 있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화 여정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늘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써 늘 새로워져야만 한다. 현재에 안주할 때 복음에서도 멀어진다. 복음화의 길에서 펼쳐지는 사목의 주체는 교회 공동체와 평신도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다.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가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은 교회 구성원들의 친교성과 선교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상의 목소리, 시대의 징표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이끄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따를 때 비로소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때(kairos), 곧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때, 변모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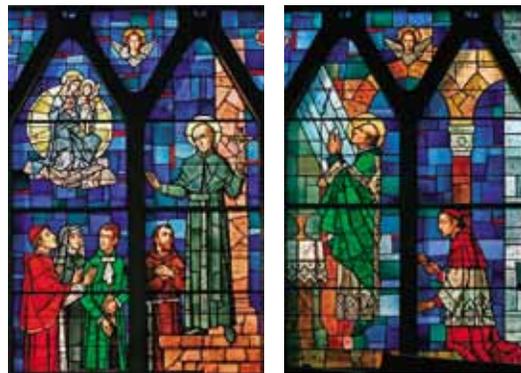
봉헌 생활의 영성

평신도의 사도적 소명을 일깨우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안 프란치스코 신부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한국지부 편집실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사 없이 평신도에 의해 시작된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철저히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일부 평신도들 안에서는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평신도」 잡지 안에서도 이 난은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살아가는 평신도 재속회들을 소개하는 난으로 알고 있다. 재속회의 시작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로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평신도 단체며, 그 후 많은 수도회들의 재속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름이 ‘재속3회’, ‘봉헌자회’, ‘협력자회’ 등 뭐라 불리든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좀 더 깊고 충실하게 하려는 평신도들의 단체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다른 수도회들의 재속회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통 재속회는 수도회가 먼저 생기고 그 뒤에 수도회의 영적 보화를 나누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the Union of Catholic Apostolate)는 연합회가 먼저 생기고 뒤에 연합회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천주교 사도직회’라는 남자 수도회와 ‘천주교 사도직 수녀회’라는 수녀회가 설립되었다.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인인 빈센트 팔로티 성인에 의해 1835년 4월 4일 설립되어 그해 7월 11일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의 칙서를 통해 교황청의 인가를 받았다. 성인은 1835년 1월 9일 미사 후에 “세례 받은 모든 이를 나의 사도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계시를 받고 평신도, 교구 사제, 수도자로 구성된 평신도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했다. 연합회의 목적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을 쇄신하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데 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살았던 시대(1795~1850)의 교회는 철저히 교계제도 중심, 성직자 중심의 교회였다. 그 당시의 평신도들은 교회의 전례와 성사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전부인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시대에 팔로티 성인은 평신도들도 이미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고, 사도로 파견 받았으니 자신의 신분과 직업이 무엇이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제와 수도자처럼 평신도도 직접적인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선교사업을 위해 물질적인 후원을 하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봉헌하는 방법, 기도와 자신의 고통을 선교를 위해 봉헌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가르쳤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영성이 1세기 이상 시대를 앞서 갔기에 교회가 그의 은사와 영성, 그가 설립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선종하고 난 뒤에 교황청은 평신도를 주교에게만 유보된 ‘사도’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합회와 수도회의 이름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1947년까지 약 100년간 쓰지 못하게 했을 정도다.

제2 성령강림으로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교계제도만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됐다. 그 결과 평신도의 사도적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1963년 1월 20일에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정신을 130여 년 앞서 실천하신 빈센트 팔로티를 시성하시면서 “오늘의 성인이요, 이 시대의 성인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재속회들이 평신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재속회원들도 수도회 설립자와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세상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재속회들은 재속회원들인 평신도들이 수도자처럼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속회원들도 수도자들처럼 성무일도 바치는 것을 특

전이 아닌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마치 평신도들이 세상 안에서 평신도로서의 고유한 사도적 소명을 살아가며 세상을 복음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평신도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처럼 여겨지는 수도자를 흉내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안에는 다른 재속회들과는 달리 평신도를 주축(현재 연합회의 세계 평의회 의장도 여성 평신도)으로, 여러 남녀 수도회와, 신심 단체(연합회 안에는 개인회원뿐만 아니라 단체회원도 있다), 교구 사제들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사도적 소명에 따라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일깨우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살아 계실 당시에는 로마에 있던 34개의 수도회들이 연합회에 가입해 함께 활동을 했다. 연합회의 활동은 어떤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대와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다양한 사도직 활동에 참여한다.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양성하는 일, 직접적인 선교활동,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활동, 인간 생명과 가정의 가치 수호를 위한 활동,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해 헌신하기, 가난한 이들과 소외당하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역임받는 이들과 연대하기,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활동, 종교 간의 대화 격려, 그리스도교의 일치성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현재 70개국에서 연합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다. ☎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한국지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12-9
우편번호 463-832
전화 : 031. 707. 4450 팩스 : 031. 707. 4474



심리 상담

분노에 대하여

건강한 좌절감 경험을 통해 내 문제 내가 끌어안기

조은영 히아친타 가톨릭상담심리전문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유아기적 소망에서 이탈하여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좌절감을 경험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좌절의 현실과 원인을 내 안으로 가져와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되어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누구의 어떤 행위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등이다.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는 사람, 화가 나서 며칠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화가 나서 술을 마시는 사람, 화가 나서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 붓는 사람 등등. 분노는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 관계 및 가족을 해체시키며 극단적으로는 신체적 상해 및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분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이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정서임에 분명하다.

어느 때 화가 날까?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즉 좌절감을 경험할 때이며 좌절감의 원인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어려워 남 탓을 해 버리는 행위이다. 영아들은 엄마의 젖이 내 뜻대로 나와 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엄마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생각하고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어 버리곤 한다. 유아들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얻지 못할 때 장난감을 얻을 때까지 떼굴떼굴 구르거나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성인들도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거나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좌절감은 내 안에 담아두기 매우 불편하여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고 그 대상을 향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좌절감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며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회에 사는 이상 필연적으로 우리는 좌절감을 경험한다. 최초의 좌절 경험은 배변통제 훈련일 것이다.

내 맘대로 똥 싸고 오줌 싸던 영아기 시절과 이별하고 참고 견뎌내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똥오줌을 가려야 한다. 이러한 좌절의 경험은 사회 적응에 필수적 요소이며 좌절을 더 잘 수용



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게 되어 사회적 유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좌절감은 순간적으로 불편한 감정이나 견뎌내고 단련되어야 할 감정이다.

모든 장난감을 사줄 수 없듯이, 몸에 나쁜 음식과 행동을 허용할 수 없듯이 부모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좌절을 경험시키지 않고 성공 경험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부모가 뭔가를 못해 주면 자녀가 경험하지 말았어야 하는 상처를 경험했다는 마음에 죄책감까지 갖는다. 이러한 마음은 또한 아이에게로 전달되어 아이는 내가 경험하지 말았어야 할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며 피해의식을 키워 나가게 된다. 그다음 자녀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직장에서 잘 살아남지 못하는 등의 좌절감의 원인을 부모나 타인에게서 찾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해 버린다. 즉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고 그에게 원인을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흥가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지 않을 때 분노는 더 커지고 더 강하게 표현되며 책

임지지 않은 채 표류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유아기적 소망에 집착하며 좌절에 대해 저항하기 쉽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받으면서 간섭은 안 받고 싶고 명절에 시댁에 안 가면서 죄책감도 안 갖고 싶고, 부인이 내조도 잘 하면서 돈도 잘 벌어 왔으면 좋겠고,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가정적이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충족하고 싶으나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짜증이 나고 심지어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마치 마트에서 엄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장난감만 사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 취업생이 있었다. 학점이 낮고 토익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에세이를 열심히 써서 입사 원서를 제출했는데 회사는 사람을 성적순으로 뽑는다고 분노했으며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암담한 현실과 사회를 비판했고 분노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도 사회는 자신을 뽑아 주기를 바랐던 순수한 소망이 좌절을 경험한 것이다. 이 학생은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사회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만 나오면 사회는 나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이 순수한 열정을 회사는 알아볼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100% 보장해 준 적이 없었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일자리는 항상 부족했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들어갈 수

분노의 원인을 남에게 쏟아내지 않고 내 안에 담고, 소화시키기 위해 나의 인격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갈 때 진정으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있었다. 이것이 자유로운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공평한 시스템인 것을 사회가 나를 위해 항상 일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면서 좌절감의 탓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외부의 문제만을 언급할까? 좌절감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이다. 나의 문제로 가져오지 않고 남 탓, 부모 탓, 사회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면 나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가벼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숙한 아이들의 분노 표현 방식이다. 아이들은 젖을 먹다가 이유식으로 바꿀 때 거친 음식이 싫으면 그대로 뱉어낸다. 환경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나를 고집한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나 성숙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으면 삼켜야 하고, 엄마 젖가슴과 이별하고 거친 음식을 내 힘으로 씹어서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하며 사회에서 소속되기 위해 똥오줌을 가려야 하고, 손가락과 젖가락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야 하고, 충동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엄마의 젖가슴과 이별하면서 장난감을 얻게 되고, 장난감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또래와의 즐거운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어려운 것을 참으면서 미래의 좋은 결실

을 얻을 수 있고 절약을 통해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고통스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얻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를 일정 부분 자제하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사회를 이해해야 입사든 승진 이든 할 수 있다. 나아가 타인의 욕구와 나의 욕구가 충돌 할 때에도 자신의 욕구를 취할 것인가 타인에게 배려하면서 뿌듯함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도 취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도 받을 수는 없다. 나의 욕구를 포기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타인의 고마움과 사랑과 높은 차원의 자기 만족감으로도 채워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배려심이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좌절감은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유아기적 소망에서 이탈하여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좌절감을 경험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좌절의 현실과 원인을 내 안으로 가져와 내 안에서 소화하는 것이야 말로 나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분노를 참아내고 억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분노는 나름대로 조절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분노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언어화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다.

미사 중 그저 따라했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가 요즘 새롭게 느껴진다. 분노의 원인을 남에게 쏟아내지 않고 내 안에 담고, 소화시키기 위해 나의 인격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갈 때 진정으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만화 세상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루카 15,6)

서원만 벨라도 대구대학교구 상인동성당 · 대구가톨릭미술인회 부회장





평신도 연구

분단 70년, 평신도 통일사도직의 진로

변진홍 야고보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부소장



2003년 3월 2일 장충성당 신자 명동대성당 방문환영.

평신도 연구는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다. 평신도 모두의 몫이다.

평신도 연구의 출발점은 평신도 자신의 자아의식이다. 자아의식은 정체성 인식으로 연결된다. 지난 봄호에서 오용석 사회사도직연구소장은 「평신도 교령」의 가르침을 통해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사회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평신도의 사회사도직이란 바로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마음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힘이 빛나도록"(교회현장 35항)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평신도사도직의 출발점이다.

평신도 연구는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다. 평신도 모두의 몫이다. 모두 함께 관심을 모으고 여기에 정체성을 강화하는 의지를 담고자 할 때 연구의 필요성도 공유되고, 그 결과도 공유될 수 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바로 이 『평신도』에 담기는 하나하나의 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그 온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 70년. 한 사람이 태어나 그 삶을 마친다고 해도 마땅히 받아들일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다. 그 긴 세월을 분단의 상처와 고통으로 채워 온 것이다. 반만 년의 역



2007년 5월 6일 평양장충성당 방문, 북한 신자들과 함께.

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를 두 동강 낸 열강들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렀다. 6·25 전쟁으로 남과 북 각각 60만 명 이상의 군인이 희생되었고, 민간인 피해도 남과 북에서 각기 100만 명과 150만 명을 헤아렸다. 인명 피해만 370만 명에 이른 것이다.

전쟁 후의 피해 역시 그에 못지않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줄어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대감과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상대를 용서하지 못할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온 증오와 복수심이 가져온 정신적 피해화 현상은 민족의 동질성마저 철저히 파괴했다. 이웃과 친구라도 적진에 눈길을 두는 사람은 원수 이상으로 '악마화'했다. 철천지원수라 할지라도 용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악마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악마는 용서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악마의 흔적, 악마의 자식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이 '분단 70년 비극'의 원형질이다. 드라쿨라에게 물리면 드라쿨라가 되고,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된다는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이 그 본질이다. '종북'은 '종북'을 낳고, '수구꼴통'은 '수구꼴통'을 낳는다는 '과대망상'과 '적대의식'이 바로 남남갈등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평신도 사회사도직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평신도 통일사도직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분

단 현실에서 굳어진 '악마화'라는 대상 인식이 과연 복음적인 것인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우리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 존재하고, 바로 그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자. 나는 과연 '악마화'의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속에 '악마화'를 빌미로 이득을 보려고 한 욕심은 없었는가? 평신도 통일사도직은 바로 이 '악마화'의 유혹과 싸우는 데서 출발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 유혹의 대상은 악마가 내민 '뿡', '권력', '부귀영화'였다. 통일사도직은 분단을 빌미로 유혹하는 악마의 장난, 즉 '뿡', '권력', '부귀영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시간 수당을 받으려고 증오의 대열에 동원되는 유혹, 권력을 얻으려고 상대를 '종북' '수구꼴통'으로 '악마화'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 유혹에서 모두를 지켜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우리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분단 70년을 유지해 온 '악마화'의 유혹을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분단 70년은 주님 축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 70년을 계기로 남과 북 그리고 남남갈등의 주체들이 서로 악마의 가면을 벗겨주고, 참된 형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전파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평신도의 몫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기도운동이 절실하다.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는 힘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도운동이 상대를 향한 화해의 기도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화'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기도일 필요가 있다. 내 눈에서 악마의 모습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상대에게서 형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주여, 우리 겨레를 서로에 대한 악마화의 유혹에서 구원하소서!



핫이슈

운동의 취지: **답게** 살겠습니다

정리
'답게 살겠습니다'운동 실행본부 교육팀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혁신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로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불신과 갈등이 늘어나고, 생명의 문화가 아닌 죽음의 문화가 만연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인의식 결여, 불공정한 룰, 금전 만능 풍조, 부정·부패 등의 심각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활동이 지지부진하여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앙인,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앞장서서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성찰과 변화를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때마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한국천주교회와 한국사회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취지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작금의 참담한 현실에서 한국천주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였다. 운동의 방향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취지에서 일차적으로 나 자신, 나아가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전개한다.

우선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성찰하는 한편, 생명으로 맺어진 가정공동체에서는 부모자식과 형제자매가, 이어 하느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공동체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또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공동체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처지와 직분에 충실하다면 한국천주교회를 이끌어왔던 순교정신이 오늘 이 땅에서 또 다른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신앙인의 자발적인 '답게 살겠습니다' 실천 운동을 통해 한국천주교회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병폐를 개선하는 한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운동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생활 속에서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내적으로는 남남갈등과 남북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외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화합에 이바지하는 큰 길에 들어서도록 할 것이다. 

가톨릭출판사
아카데미
2015 

가톨릭출판사 아카데미의 새로운 강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창우의 가톨릭 미술·디자인 읽기'는 가톨릭 미술과 가톨릭 디자인에 관심 있는 신자 및 관련 디자이너들을 위한 교양 강좌입니다. 이창우 교수는 중세 미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미술과 디자인을 흥미롭게 분석하여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1강 8.25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기호의 역사적 의미와 도상적 고찰
2강 9.1	가톨릭 미술 읽기 첫 번째, 건축과 공간 교회 건축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신앙의 기호와 숨은 이야기
3강 9.8	가톨릭 미술 읽기 두 번째, 미술과 도구 교회 미술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신앙의 기호와 숨은 이야기
4강 9.15	숨은그림찾기 기호의 변화와 발전, 교황·주교의 문장과 신앙의 기호가 활용한 미술품 이야기
5강 9.22	구텐베르크 성경 이콘 이야기, 구텐베르크 성경, 산업 혁명 이후 성경 인쇄술과 미술의 변화 이야기
6강 10.6	우리 성당 디자인 이야기 첫 번째, 건축과 미술, 디자인 교구의 역사, 성당의 건축과 미술의 변화 이야기
7강 10.13	우리 성당 디자인 이야기 두 번째, 미술과 아이덴티티 디자인 교구와 성당의 아이덴티티, 우리 성당의 미술 이야기
8강 10.20	가톨릭 디자인의 미래 지역성, 소재의 표현 다양성과 보수성, 디자인과 행사(세계 청년 대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야기

교육 기간 2015.08.25~10.20
매주 화요일 18:50~21:50(8회)

교육 장소 가톨릭출판사 마리야홀

수강료 8만 원(김밥 및 간식 제공)

수강 신청 선착순 50명

접수 기간 2015.06.07~08.25

수강 신청·문의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co.kr
이메일 academy@catholicbook.kr
전화 02-6365-1881

주최 및 주관 가톨릭출판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창우의
가톨릭 미술, 디자인 읽기





평신도 에세이

말씀달력으로 복음 나누기

임종심 마리아 중립동성당



말씀달력 예시

제가 하는 보잘것없는 봉사는 매일매일 말씀 달력을 작성하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 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 스스로 '복음(말씀)을 생활화 하자'라는 작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바오로딸 말씀달력 수첩에서 나 날이 그날의 복음을 읽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읽지 못했을 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짬을 내어 읽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사진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었더니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워드로 작성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바오로딸 말씀달력 수첩의 말씀만 촬영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축일을 축하하기 위해 말씀과 축일 축하인사를 함께 전달하였는데, 그것을 본 다른 지인이 덕분에 잊고 있었던 아들의 축일을 축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축일을 같이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매일 아침마다 축일을 챙기고

바쁜 날에는 건너뛰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 말씀달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좀 더 열심히 목상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 영혼을 살찌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날의 복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저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바오로딸 말씀수첩 사진을 그대로 보냈는데 내가 직접 말씀 목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지기와 매일미사의 복음을 참고로 선택하고 직접 찍었던 사진 중에서 그날의 말씀과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 목상에 제가 속한 공동체인 가톨릭언론인협의회,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약현직장인미사, 가톨릭언론인산악회 등의 행사일정도 같이 올려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서소문순교성지에서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복자의 첫 번째 기념일 미사’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조규만 주교 및 교구 사제단 공동으로 오전 10시에 순교자현양탑에서 봉헌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불광동성당에서는 제33회 가톨릭독서콘서트 3주년 기념으로 유안진 시인을 초청해



카카오톡 예시

‘성경 - 내 작품의 태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cafe.daum.net/CJPA-ucip/22yL/66>”

“오늘 저녁 7시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는 가톨릭언론인 신앙학교 3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선배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도심 속 영혼 휴식 주님의 잔치’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 월레미사가 평화신문사(PBC)에서 조규만 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월보 보기 ☞ <http://cafe.daum.net/CJPA-ucip/465a/16>”

“오늘 오전 8시 덕수궁에서 출발 제115차 가톨릭언론인 산악회 성지순례로 하부내포성지를 갑니다. ‘갈매못에서 순교한 5분 성인(다블뤼, 오메트르, 위앵, 장주기, 황석두)의 유해를 하부내포신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처형장에서 모래에 묻힌 시신을 잘 수습하여 안전한 곳으로 모신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함께 성지순례 떠나요^^”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카페 말씀달력 페이지

♥♥♥ 소피아 축일(6/5)을 진심으로 축★하 드려요.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날 되세요.~^_^) 꼭이여~^^

♪♪♪ 6월 월레미사 때 얼굴 봤으면 합니다. 자랑스런 공동체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 회장 김선동 루카·홍보부장 임종심 마리아 올림

<http://cafe.daum.net/CJPA-ucip/22ua/39>

처음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과 말씀을 함께 보냈으나 그다음부터는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카페의 말씀달력 페이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카페의 URL만 복사하여 전달하니 훨씬 수월해지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바쁜 날에는 건너뛰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 말씀달력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좀 더 열심히 목상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 영혼을 살찌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토빗 3, 11)



보물찾기

이영에 테레사 남한산성 성지성당

봉사 중 실수가 나오면 서로 질책하고 불편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챙겨주고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큰 보물을 찾은 것이다.

어릴 때 소풍을 가서 하는 마지막 행사가 보물찾기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며 김밥과 간식, 필수 품목인 사이다를 가방에 챙겨 넣고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먼 길을 걸어도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던 소풍. 김밥을 먹고 조금 지나면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 모두 모여 보물찾기를 한다. 작은 쪽지를 찾기 위해 나무 위도 쳐다보고 작은 풀숲도 헤쳐보고... 돌맹이 밟도 소중한다. 어디선가 “찾았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더욱 집중해서 눈을 크게 뜨고 찾는다. 상품이 작아도 마냥 기쁘다.

지금도 보물찾기를 한다.

남한산성 성지에서 보물을 찾는다. 쪽지도 없다. 눈에 보이는 상품도 없다. 12~13년 전 성지봉사자가 돼 전국을 다니며 순례하려고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지금은 사정상 성지순례는 다니지 않지만 순교성지 안에서 하는 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처음에는 미사해설을 했다.

게시된 수녀님이 본원 사정으로 가신 후 제대 봉사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성지 안에서 순례안 내봉사도 한다. 나이 탓인지 미사해설 때는 가끔 목이 잠길 때도 있고 돋보기로 보는데도 실수를 할 때도 있다. 제대를 차릴 때는 절대 실수가 용납



가운데가 필자.

되지 않기에 기도를 하고 차린 후 확인, 또 확인을 한다.

한 번은 성반 위에 대제병을 놓은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아 분명 빠뜨린 거라 생각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미사 중이지만 신부님께 전해 드리는 게 낫겠지 하면서(성당이 좁아 제의실이 제대 위 한쪽에 있음) 제대를 향해 가는데 신부님께서 대제병을 들고 계셨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미사 후 신부님께 미사 중 제대를 향해 돌진한 속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제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나 걱정하셨다고 해서 한참 웃었던 게 기억난다.

봉사자들이 30여 명 되지만 제대, 해설, 반주, 헌화 등 여러 파트로 나누어 봉사하기 때문에 서로 데면데면하고 각자가 맡은 봉사가 끝나면 12시 인데 점심도 거른 채 돌아간다. 봉사자 회의가 있지만 늘 참석하는 사람만 하고 모처럼 오는 사람은 어색해 한다. 이왕 봉사하는 거 봉사자끼리 가까워지면 봉사가 좀 더 신나지 않을까.

방법은 하나. 같이 먹자.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성지에서 약간의 보조를 받아 소찬이지만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했다. 별식이 있으면 신부님도 초대했다. 같이 준비하면서 웃고, 먹으면서 이야기보따리를 푼다. 봉사 중 실수가 나오면 서

로 질책하고 불편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챙겨주고 다 용서가 된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큰 보물을 찾은 것이다. 자기 당번이 아니라도 시간이 되면 성지에 와서 미사를 드린다. 가끔 봉사자가 착각을 해 핑크를 낼 때도 있다. 반주 핑크야 선창자만 있으면 되지만 제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다. 몇몇 봉사자는 해설, 제대를 함께 맡기 때문에 핑크가 날 때면 요긴하게(?) 쓰인다.

한 번은 시간이 나기에 성지 미사를 갔다가 천연덕스럽게 회중석에 앉아 묵상을 하는데 사무원이 “자매님 오늘 해설이예요.”

“오잉?” 속으로 ‘해설자가 오늘은 좀 늦는구먼?’ 했는데... “나라고?”

몇 년 전부터는 남한산성 내에서 성지순례 안내를 한다. 포도청 - 옥터 - 연무관 - 제승헌 - 시구문을 도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순례다. 한국천주교회와 남한산성 성지에 관해 설명한다.

정2품 광주부사가 다스리던 곳이기에 박해를 거르지 않고 다 당한 곳이다. 포도청과 옥터에서는 순교자들의 믿음살이를, 연무관과 제승헌에서는 여러 가지 고문 형태와 참수형을 받은 이성례 마리아를 설명한다. 시구문에서는 병인박해와 교우촌을 설명한다. 출발할 때에는 “30분만 해 주세요.” 하던 순례자들에게 “순례는 시간 흥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순례를 중단해도 됩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순교자들과 만나면서 시간은 충분하니 많은 설명을 해 달라고 조른다. 같이 걸으며 기도하며 순례자들은 순교자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닮고자 한다.

그렇게 또 나는 보물을 찾는다. 성지에도 어느 분당처럼 행사가 많다. 부활, 성모의 밤, 신부님 본명 축일, 순교자현양대회, 등반대회, 성탄, 송년

미사 등등. 큰 행사 때에는 약 200명분의 국수나 밥을 한다. 열악한 주방 환경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은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즐거워한다.

어느 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신부님께서 경로잔치를 하신다며 준비하라고 하셨다.

주문은 코스요리. 헉!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메뉴로 준비를 했다. 처음 에피타이저로 호박죽. 문제는 그릇의 태부족. 몇몇 봉사자들은 그릇 수거에 초특급 설거지로 발바닥에 붙이 난다. 그래도 깔깔대며 다 해냈다. 가실 때 사탕과 떡을 쥐여 드리는 신부님 마음씀씀이도 아름답지만 그걸 해치우며 즐거워하는 봉사자들도 예쁘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곧 내가 경로잔치에 초대받을 것 같다.

신부님께서 미사 때 가끔 말씀하신다. “제가 올 때 우리 봉사자 자매님들 모두 젊고 미인이시고 힘도 장사였는데 지금 모두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봉사해 주시니 고맙죠.” “신부님도 청년이셨는데 이제 중년아저씨네요.”

지난 4월 새 성전 봉헌식을 했다. 1000여 명의 신자가 모여 같이 미사를 드리며 오랜 세월 염원해 왔던 아름다운 한옥 성전을 주님께 봉헌했다. 구성전은 모두가 쉬어 갈 수 있는 카페로 만들었다. 처음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성전이 새 한옥 성전으로 바뀌고 주변도 많이 변했다. 편리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어찌면 처음의 그곳이 더 은혜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더욱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보물찾기는 계속할 것이다.

보물은 소중한니까.



요셉의원 주방 밥 냄새를 맡으며

이충규 요셉 성심치과의원 원장

고향 근처에서 개원했으면 돈은 좀 더 벌었겠지만 요셉의원 같은 귀한 영혼의 일터와 거기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가끔 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라는 전문 의술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가 밤새 통증으로 잠 못 이룬 환자가 제가 하는 간단한 처치로 통증이 사라지고 입가에 밝은 미소를 짓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네 하면서 슬그머니 미소를 짓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치과 의술로 24년간 요셉의원에 오시는 환자들의 통증을 없애 주고 틀니를 만들어 주어서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한 앞으로 26년 정도 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셉의원에 나오면서 봉사하러 온다는 특별한 생각을 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 치과에서 야간 진료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개원해서 보는 환자와 요셉의원에 오는 환자를 차별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

다. 이따금 환자들에게 “이거 우리 치과에서 하면 몇 백만 원짜리라고 험박(?)을 합니다.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잘 쓰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꽃동네 같은 곳에서는 틀니를

3~4개 이상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비를 받지 않으니 조금만 아프면 적응하려는 노력은 안 하시고 잃어버렸다며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틀니가 3~4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단돈 1만원이라도 받으면 본인 스스로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아껴서 잘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에겐 얼마라도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선 병원이 이들의 아픈 데만 치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재활까지 신경 썼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치과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가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묵묵히 고생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치과의사만 받고 있는 게 좀 겸연쩍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치기공사 치위생사 선생님들의 노고도 모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꽃동네를 다녀오든지 요셉의원을 다녀오든지 집사람은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무대접을 무척 좋아합니다. 봉사란 자



랑할 게 아니라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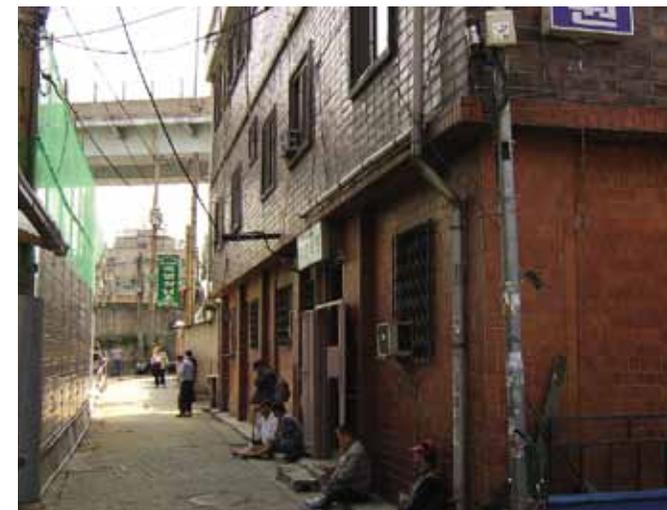
일요일 꽃동네 진료를 다녀오고 월요일 제 치과에서 많은 환자를 보다가 저녁에 요셉의원에 가려고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등이 벌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저녁에 환자를 보나 하다가도 요셉의원에서 주방 봉사자 매님들이 차려준 맛있는 저녁을 먹고 환자를 보면 어느새 통증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저녁 진료가 끝나면 같이 봉사한 선생님들과 시원한 맥주 한잔도 빠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봉사의 고리로 맺은 인연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고리 또한 중시해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원 입구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모님 저의 수고가 예쁘시다면 저의 수고를 성모님께 드리오니 저의 수고를 예쁜 꽃으로 만들어서 하느님께 봉헌해 주십시오.’ 지금껏 크게 아프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요셉의원에 나갈 수 있었던 건 성모님의 보살핌과 성령이 함께

해 주신 덕분입니다.

24년 전 개원 자리를 알아보면서 문득 서울에 가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무작정 상경하여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치과를 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향 근처에서 개원했으면 돈은 좀 더 벌었겠지만 요셉의원 같은 귀한 영혼의 일터와 거기서 일하시는 훌륭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오늘도 전 제가 가진 치과의사란 달란트가 별거 아니란 생각을 해 봅니다. 별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환자에게 감질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요셉의원 주방에서 풍겨오는 밥 냄새가 구수합니다. 



요셉의원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진료병원.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김순점 테레사 요셉의원 간호봉사자

문득 이곳은 요셉의원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하느님이 계신 집'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겠지요. 도움을 주러 오시든, 받으러 오시든 그 누구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이곳이 늘 사랑이 넘치는 이유겠지요.



사전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나는 하고 있는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요셉의원에 근무하는 한 분이 저보고 나눔과 봉사에 대해 글을 써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왜 저보고 쓰라고 하시느냐?"고 여쭙어 보니 봉사한 지가 꽤 되었으니까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요셉의원에 나가기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7년 4년간의 미국 간호사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무료하게 생활하던 중 나눔을 위해 한 번 일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인터넷을 뒤져 한 곳을 선정했는데 그곳이 요셉의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의원을 처음 찾은 날 수녀님께서 되도록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자투리 시간에 잠깐씩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만 둘까 생각하였으나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시작했습니다. 매주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열심히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요셉의원에 가서 노숙자들 진료를 보조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노숙자들, 진료를 하러 오시는 의사님들, 진료 보조를 돕는 간호사 및 일반인들 그 밖에 미용·목욕 봉사, 노래 봉사, 음식 봉사 하시는 분들 등등 -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묵묵하게 나눔을 돕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도움을 받던 분들이 본인들의 사정이 괜찮아지면 당신들보다 더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분들 중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것밖에 못 해 주느냐고 소리치며 화내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도움 받는 분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나눔을 도우려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저는 그곳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나눔을 돕는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곳은 요셉의원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하느님이 계신 집'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겠지요. 도움을 주러 오시든, 받으러 오시든 그 누구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 이곳이 늘 사랑이 넘치는 이유겠지요.

제가 그곳에서 "봉사를 한다." 아마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저는 사전에 나와 있듯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그런 봉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기술을 남에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을 할애할 뿐이지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좀 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면 '이태석 신부님'이나 '선우경식 원장님'처럼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요일이니까 봉사하러 가시는 날이네요. 참 대단하세요." 하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진 조그마한 것을 나누주고 정말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을 그곳에 갈 때마다 받아오는데, 봉사를 하러 다닌다는 말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열정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야말로 참된 봉사자들이지요. 그래도 언젠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할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하느님이 머무시는 요셉의원으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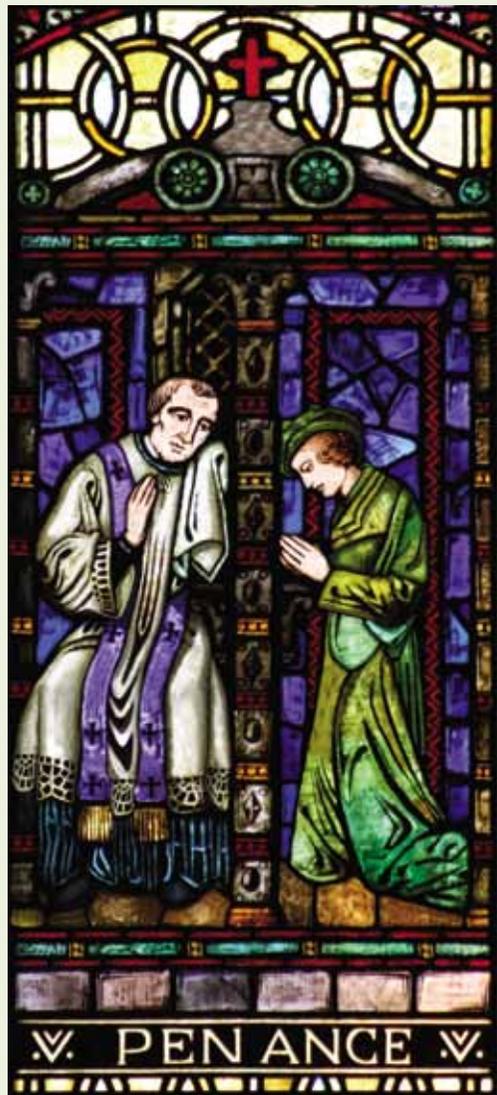


문화영성 산책

진정한 자기노출을 위한 고해성사

김민수 이나시오 서울대교구 불광동 성당 주임신부

고해성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1. 고민과 괴로움을 털어놓아야 편하다

어느 늦은 밤 사제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주임신부는 귀찮게 하는 전화가 많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자살하려는 신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전화였다. 설득 끝에 자살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만약 그 신부가 귀찮다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살했을 것이다.

종교사회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는 개신교 신자들의 대부분은 목회자를 찾아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행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두고 모 개신교 신학자는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자살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겪는 고민과 갈등, 시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기노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기노출 커뮤니케이션’이란 자기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술이나 감정 혹은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일컫는다.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 알게 하거나 보여 주기 때문에 심리적·신체적 건강 모두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이런 면에서 가톨릭의 7성사 중 하나인 고해성사는 일종의 자기노출 커뮤니케이션인 셈이다.

2. 영혼의 치유이며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죄를 지은 신자가 밀폐된 고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여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 받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화해의 성사다. 이러한 죄의 고백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고해할 때 비밀스런 짐을 털어내어 내적 해방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이들이 고해성사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느님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과 위안 때문이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는 자기노출 정도에 따라 심리적 해방감과 내적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고해성사 자체로서 사효성(事效性)은 인정되지만 인효성(人效性)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사제에게 죄 고백을 부끄러워하여 솔직하지 못하거나 양심성찰 없이 그대로 고백소에 들어와 의무적으로 고백하고 나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라는 구절에 자신의 죄를 감추어 버린다면 고해성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노출은 고백자 편에서만이 아닌 고해사제의 태도 여부에 따라 노출 정도가 좌우되기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다. 고백 중에 신자가 고해사제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맞고 냉담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자기노출을 기피하게 만든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고해사제는 고백자가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노출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애쓴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은, 고백자 개개인의 상황, 즉 나이, 성, 교육정도, 사회적 위상, 건강상태, 지역, 시간, 결혼 여부 등의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으며, 이 상황을 순간적으로 간파하여 그에 적절한 소통의 환경을 조성하는 매우 세밀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고백소에 들어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고백자에게는 스스로 고해를 할 수 있는 잠깐 동안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준다. 만약 고해사제가 이를 참지 못해 빨리 고백하라고 압박지른다면 고백자는 자기노출은 커녕 실망 속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릴 수도 있다.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신부나 오상의 비오 신부에게 엄청난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하러 끊임없이 몰려들었던 이유는 진실성 있는 자기노출의 가능성을 그 성인들에게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로 자기노출을 하게끔 이끈 원동력은 바로 하느님과 일치된 성인들의 삶에 있다.

3. 자기노출로서의 고백

자기노출에는 수준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나이와 같은 피상적 사항을, 그다음에는 종교관과 같은 개인적 가치관을, 그다음에는 함께 지내는 사람

자신의 죄를
감추어
버린다면
고해성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해성사는
아날로그적
고백의 형태를
취한다.
가톨릭교회는
전화나 인터넷
등 미디어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해성사를
성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해성사는
현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들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노출시킨다고 한다. 이런 수준을 따른다면 고해성사는 바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결코 피상적이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고백은 주일미사를 빠졌다는 것이다. 외적이고 피상적이며 의무방어적 고백이다. 물론 주일미사를 하지 않은 것을 죄로 고백해야 하지만 대체로 자기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죄스러운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신앙생활의 패턴이 내적인 삶에 관심을 두기보다 형식적 신앙행태에 만족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은 SNS가 일상화되어 있다.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에 쉽게 연결과 소통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노출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지인들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소통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진다. SNS에 중독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 버린 문화적 현상은 서로 간 소외되어 있고 감정적인 유대가 파괴되어 있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욱 타인에게서 자기 관심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자리한다. 그러한 욕망이 SNS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노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너무 빈번한 메시지 세례로 자기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로 후유증에 시달린다.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라는 피해를 자신도 모르게 겪게 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SNS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삭제하여 일상생활에서 멀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노출의 대표적인 형태는 고백이다. '전통적 고백'은 자신의 비밀을 언어화하는 작업으로써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기장, 아주 친한 소수 사람이나 종교 권위자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고백'은 상상적 다수 독자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띤다. 예를 들면, 자기 고백적 블로그를 만들기 대중적 인기를 끄는 현상은 자기노출을 통해 고백하고 싶어 발버둥치는 대중의 심리를 드러낸다. 더군다나 사회 관계망이 더욱 촘촘히 엮어질수록 인맥도 넓어져 빈번한 접속과 연결이 발생하지만 그럴수록 소외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온라인이 매개가 된 고백에는 직접적 대면을 통한 고백의 진정성과 현장성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적 고백'이 주는 묘미와 여백이 있다.

4. 아날로그적 자기노출로서의 고해성사

진정한 자기노출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인 고해성사는 아날로그적 고백의 형태를 취한다. 가톨릭교회는 전화나 인터넷 등 미디어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해성사를 성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해성사는 현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고백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고해신부를 직접 만나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죄를 받는다. 고백하는 도중에 눈물과 애절함, 죄책감과 수치심, 평화와 안도, 기쁨과 감사 등의 느낌과 감정이 교차된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기노출이 직접적인 대면에서 다양하게 표출된다.

최근에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염려스런 소식이 들린다. 2014년 교세 통계조사를 보면 고해성사를 본 신자가 전년에 비하여 2.3% 줄어들었다고 한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본당 신자들 중에는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워 기피하거나 냉담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반면 소외현상이 심화되면서 SNS에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많이 보게 해야 한다는 양적 관심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자기노출을 잘 할 수 있게 해 줄까?"를 고민해야 한다.

교회는 성사생활이나 신앙심의 객관적 지표 중 하나로 고해성사 보는 신자 수에 의존해 왔다. 양적 지표에 따른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른 신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허점이 있다. 요즘 길거리나 시위현장, 또는 건물 안이나 쇼핑몰 등 언제 어디서나 CCTV라는 감시카메라에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역시 늘 감시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감사사회'에 살고 있고, '감시의 내면화'가 곧 권력행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노출에 매우 민감하다. 교회는 왜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를 개인적이고 내면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정보 노출이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고해성사는 신자들에게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최근 이를 보완하여 '상설 고해소'를 여러 군데 설치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본당에서도 자기노출을 꺼리는 신자들에게는 타 본당이나 특수사목 사제를 정기적으로 고해사제로 초청하거나 자기노출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분위기(예: 여유 있는 시간, 딱딱한 고해 형식보다는 면담식 고해 등)를 연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런 시도는 어떻게? 어느 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신자들에게 면담식 고해성사가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3월 28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고해를 하고 있다.

자기노출을 꺼리는
신자들에게는 타 본당이나
특수사목 사제를 정기적으로
고해사제로 초청하거나
자기노출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평신도가 된다 가톨릭의사협회

이번 호에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사도직 수행과 신앙에 대한 나눔을 내용으로 고영진 회장님을 통해 이메일로 질의·응답 하였습니다.

<편집자주>



2011년 몽골 다르항에서 실시한 한국의료협회 해외 의료봉사시 사진. 한국·일본·몽골 의료봉사자들과 함께.

☁ 한국가톨릭 의사협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1947년 4월 서울대교구 가톨릭신자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의 전신인 '방지거 시베리오회'를 조직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1년 대구교구 가톨릭의사회, 1968년 부산교구 가톨릭의사회가 창립되었으며 1969년 3월 31일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초대 협회장으로는 김웅규 박사가 선출되었으며, 대표담당사제는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유수철 도미니코 신부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김평만 유스티노 신부님을 대표담당사제로 모시고 22대 협회장으로 고영진 디모테오 교수가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전국 14개 교구 가톨릭의사회에 1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회원들은 가톨릭 의료인으로서 사도직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매년 부활 2주 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1년간의 협회 활동을 계획하며, 동시에 전국의 가톨릭 의사들이 모여 피정을 실

시하고, 연말에는 전국 교구 가톨릭의사회 회장단 모임을 통해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매년 가톨릭의사협회지를 발간하고, 교구별 가톨릭의사회에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미사를 통해 회원간의 신앙생활 강화, 신앙교육, 의료봉사 활동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병자의 날 국내 개최를 유관 단체와 함께 개최하며, 아세아 대양주 가톨릭의사연맹 회원 단체로서 매년 개최되는 연맹 회의의 연계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 지역 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2년 세계가톨릭 의사협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이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다양한 국내 의료 선교 활동과 가톨릭의료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몽골, 필리핀 등 해외의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제47차 총회 후 대전교구장이신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과 함께한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회원 단체 사진.

☁ 의료인들은 사회적으로 전문직종사자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에서 참 그리스도 의료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말하는데, 가톨릭 의료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생활에서 솔선수범하여 도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기희생을 통한 사랑과 나눔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과학의 발달로 세상의 상식과 가톨릭교회의 생명윤리의 가르침이 차이나는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톨릭 의료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와 정부가 주도한 연명의료결정법(안)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과학만능주의와 함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의 이면에는 몇몇 의료인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의료인들은 의술이 생명을 임의로 처분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잘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것, 즉 의료란 생명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료활동을 통해 신앙에 대한 체험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상 깊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신의 근육염의 후유증으로 인해 걸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었던 소녀를 기억합니다. 지방의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저를 찾아왔던 환자로 몇 번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의 치료로 인하여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던 그 소녀를 진료하며 함께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소녀도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소녀와 제가 바라던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3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까지 통과하고 미국 우수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요즘 밝고 건강한 그 소녀를 볼 때마다 저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복자들의 영성

최필공 토마스

가두 선교의 효시, '보배로운 피'의 증거자

김길수 사도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겨났고 보존되는 것도 또한 한 가지이며, 다른 은혜, 또한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시며 우주의 아버지이시며 주재자이신 그 천주의 강생구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아무 뜻도 없고 원리도 없는 도를 어떻게 감히 이 종교와 비교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참된 결과와 참된 지식이 있나이다.”

신유박해 때의 순교복자 최필공 토마스(1744~1801)의 집안은 중인 계급으로 궁중의 의관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뜻이 굳세며, 의로움에 의지하고 재물에 소홀한 모습으로 뛰어난 풍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순교복자 최필제 베드로의 사촌형이며, 역시 순교복자인 최창현 요한과 정인혁 타대오와는 친척간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는 궁중의 의관을 지낸 이들도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그의 대에 와서는 벼슬을 얻지 못하여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여 나이가 찼으나 결혼도 못했는데 다만 솔직하고 너그러운 그의 성격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진실하여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1790년에 사촌동생 최필제와 함께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배워 즉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습니다. 그는 입교

하는 날부터 큰 열성을 보여 영혼 구원에만 마음을 쓰고 육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일조차 잊어버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이 거룩한 신앙적 열정은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면서 두려움을 모르듯이 천주교를 공공연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가끔 한길 가운데 군중 속에 멈추어 서서 “천지의 큰 임금님을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주님을 어찌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나라 가두 선교의 효시라고 해도 좋을 사람일 것입니다. 1801년에 순교한 김계완 시몬도 그에게서 교회서적을 빌려 읽고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그의 열성은 널리 알려져 영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한 신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거리와 군중 속에서 신앙

을 고백하던 용감한 신자 최필공은 그의 입교 사실과 열렬한 신앙생활로 관헌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91년 신해 박해가 일어나자 가두 선교자 최필공은 체포되어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체포된 동료들은 대부분 배교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가두 선교자 최필공은 모진 형벌과 심문을 받으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천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천주님에 대한 본분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적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형벌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최필공은 거듭되는 심문과 형벌에도 항상 한결같은 목소리로 신앙고백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마지않았는데 어떻게나 순진하고 솔직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였는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그의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확신은 마침내 정조 임금께 알려지고 정조는 최필공의 목숨을 보존하여 주교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를 회유하여 몇 마디 굴복하는 말이라도 얻어내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조에서는 갖은 유혹으로 그를 회유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리들은 이제 오직 준엄한 사형판결 선고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최필공을 옥에 가두되 특별히 보살피 주어라고 했습니다.

박해자들은 비신자인 그의 숙부와 동생들을 옥에 들어오게 하여 울면서 그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오만 가지 회포와 감개에 북받쳐 오르는 걱정과 슬픔을 느꼈으나 그는 그 쓰라린 인성의 고통을 참으로 영웅적인 의지로 견뎌냈습니다.

이때 사촌 동생 최필제는 거짓으로 형의 자백서를 써서 관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이 사형을 주장했는데도 정조는 옥에서 보살피 주도록 했습니다. 그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으나, 형리들은 의연한 그의 자세에 감동하고 또 임금님의 뜻을 살피서 최필공이 회유되었다고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정조는 최필공의 순종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에게 의관의 집안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벼슬을 내리게 하여 그는 평안도 지방에서 조정에 올리는 약제를 검사하는 직책인 ‘심약’에 임명되었습니다.

또 정조는 집도 마련하게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크게 기뻐 하였습니다. 최필공이 임금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누린 세속의 행복은 이 짧은 기간이 전부였습니다. 최필공은 곧 비록 거짓일지라도 배교의 대가로 얻은 그 세속의 복락에 대해 무섭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최필공이 실제로 회유에 못 이긴 것인지, 아니면 그가 회유하였다고 거짓으로 꾸며 임금께 아뢰려 하는 말들에 대해 강력히 항변하지 못한 심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그가 회유되었다는 보고가 임금께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함

거룩한 신앙 열정은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면서 두려움을 모르듯이 천주교를 공공연히 전파했다.

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필공이 자신의 죄(거짓 배교를 통해 얻는 세속의 행복)를 몹시 슬퍼하였고, 그의 벼슬 '심약' 자리를 사임하고(3년 후 서울로 돌아와 편자동에 살면서 도저동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습니다. 1794년 말에는 주문모 신부를 찾아가 성사를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신자의 본분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799년 다시 체포되어 심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조 임금께서 친히 심문한 적이 있었는데, 훗날 순교자 신태보가 편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록 중에 한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왕 “나도 천주교 서적을 읽어 보았다만 네 생각에는 그 도를 불도와 비교하면 어떤 것 같느냐?”

답 “예수 그리스도님의 종교를 불교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겨났고 보존되는 것도 또한 한 가지이며, 다른 은혜, 또한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시며 우주의 아버지이시며 주재자이신 그 천주의 강생구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아무 뜻도 없고 원리도 없는 도를 어떻게 감히 이 종교와 비교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참된 결과와 참된 지식이 있나이다.”

국왕 “그러나 네가 만물의 지극히 착하고 위대한 주재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더구나 악한 자들에게서 모욕적인 죽임을 당함으로써 세상을 구할 수 있던 단 말이나? 그것은 믿기가 매우 어렵다.”

답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 팡 임금께서 당신의 온 백성이 7년의 가뭄으로 죽게 될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어 손톱을 깎으시고 머리를 자르시고 초석을 두르신 다음 유림의 빈들로 나가 서서 울며 고행을 하시면서 당신을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풍족한 비가 2천 리나 넘는 지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임금을 성왕이라 불렀사옵니다. 그러하오나 구속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옵니까?”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백성과 세상 만물이 이 구속에 젖어 있으며 그것만으로 보존되나이다. 전하! 그러하므로 전하께옵서 그것을 믿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나이다.

그런 다음 임금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를 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조와 대신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조 임금께서는 “진리는 스스로 지행되는 것이니 매사가 마침내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최필공 토마스를 오히려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조 임금께서 1800년 제위 24년 만에 승하하고 정세가 바뀌면서 1801년 신유박해가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1월 31일(음력 1800년 12월 17일) 형조에서는 최필공 토마스를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이를 후에는 동생 최필제와 동료 오달현 스테파노도 체포하여 함께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최필공 토마스는 이전의 굳건했던 신앙고백과 형리의 비위를 거스르는 정조 임금의 배려를 못마땅하게 여긴 형리들에 의해 누구보다 더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한 믿음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잇달아 일어난 박해로 잡혀온 신앙의 동지들을 옥중에서 만났습니다. 최필공 토마스는 옥중에서 만난 그의 영원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약중, 이승훈 등 다섯 신앙의 형제들은 1801년 2월 26일(양력 4월 8일) 서소문 밖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나이 57세에 형벌과 모진 옥고로 인하여 사형장으로 가는 수레에 오를 때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이르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곧은 성격과 고귀한 진실성으로 정조 임금도 감동시킨 그는 형장에서 더욱 바르고 의연하며 얼굴에 기쁨의 빛을 나타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숙연케 했습니다. 망나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였고 최필공 토마스의 너무나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에 질려 목을 치면서 단번에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내리친 칼은 상처만 내고 말았습니다. 최필공 토마스는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상처에 갖다 대었다가 피가 흥건히 젖는 손을 떼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외쳤습니다.

보배로운 피!

과연 그 피는 보배로웠습니다. 그 피는 순교의 피요, 그를 구원한 승리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천국에 이르는 문을 여는 영원한 생명의 피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영광의 피이며, 모든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의 신앙의 씨앗이 되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형장에서 드러낸 그 신비롭고도 평화롭게 빛나는 얼굴을 본 많은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증거자들의 죽음으로 오히려 신자들은 늘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림/ 탁희성 화백
첫 번째 칼이 목을 비켜가자 최필공이 흐르는 피를 움켜쥐고 '보배로운 피'라고 외치고 있다.



교우들과 모임 중인 최필제 약방에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배움

인문학 강좌

다문화와 인류공동체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자신의 문화와 상대의 문화를 대등하게 여긴다면 습합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자신의 문화를 상대의 문화보다 우월하게 인식한다면 압승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존중하고자 할 때, 낮설고 이질적인 상대의 것을 배워 익혀서 하나로 아우르고자 하는 습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알볼 때, 낮설고 이질적인 상대의 것은 미개하고 저급하므로 힘으로 제압해서 깨뜨려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주위의 존재와 관계를 맺어가며 산다.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물에서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絶海孤島)에서 살거나 기이하고 깎아지른 기암절벽(奇岩絶壁)에 기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 것이다. 유다계 종교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나와 그것의 종속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대등한 만남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관계는 다른 존재를 마주 보는 일이고,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며, 그를 실존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남은 진솔한 대화로써 이루어지며, 그 대화는 인격을 나누는 행위인 것이다.

교통과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의 시대가 가속화되었다.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 사상, 종교 등이 접촉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러한 낮설고 이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러한 것들을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느냐에 있다.

사찰에 가면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신 대웅전,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대적광전, 관세음보살을 본존불로 모신 원통전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본전의 위쪽으로 산신,

독성, 칠성을 모신 전각을 종종 본다. 산신각은 그야말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던 토착신을 모신 곳이다. 독성각은 원래 남인도의 천태산에서 스승의 도움 없이 홀로 깨달은 나반존자를 봉안한 곳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단군신앙과 결합되어 전승되어 온다. 또한 칠성각은 옛날부터 이 땅에서 수명과 장수를 관장한다고 믿어지던 칠성신을 받든 곳이다. 세 곳 모두 불교가 이 땅의 기존 문화와 결합한,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전각이다. 이는 불교가 4세기경에 이 땅에 들어와 기존의 토속신앙을 끌어안은 결과다. 토속신앙 승양계층을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하게 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종교·사상이 다른 종교·사상을 만나 절충하는 형태를 습합(習合)이라 한다. 나와 다른 것을 배워 익혀서 하나로 아우른다는 뜻이다.

물론 불교가 습합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강제로 눌러서 이기고자 하는 압승(壓勝)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강화의 석모도에 보문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다. 그 절 뒤편에 있는 눈썹바위에 석불을 새길 때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처음에 부처를 새길 때 정이 자꾸 구부러져 일이 진척되지 않았으며, 그 바위를 건드린 뒤로 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경북 영일군 지행면에 있는 고석사의 석불 이야기에 서도 확인된다. 치성을 드리면 반드시 효험을 보던 바위에 부처를 새기자 피가 흘러내렸으며, 마침내 영험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들은 불교가 압승의 형태를 띠자 토속신앙을 승양하던 계층이 반발한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장승을 톱으로 베어 버리고, 단군상을 훼손하는 세력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질적인 것과의 만남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도 외래종교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가톨릭이 이 땅에 깊고도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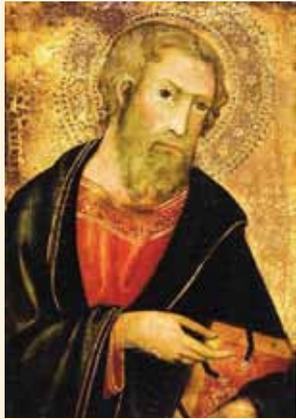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하여 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위 문화다원주의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문화와 상대의 문화를 대등하게 여긴다면 습합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자신의 문화를 상대의 문화보다 우월하게 인식한다면 압승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존중하고자 할 때, 낮설고 이질적인 상대의 것을 배워 익혀서 하나로 아우르고자 하는 습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알볼 때, 낮설고 이질적인 상대의 것은 미개하고 저급하므로 힘으로 제압해서 깨뜨려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무렵에 프랑스의 한 여배우가 우리의 개장국 문화를 맹렬하게 비난하였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애견의 차원을 떠나서 목축문화와 농경문화에서 개의 기능과 효용가치에 대한 차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눈만으로 상대를 판단한 결과였다. 이러한 우월감 내지 우매함은 비단 음식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과 첨단, 그리고 세대간의 차이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다. 낮설고 이질적인 상대를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넓은 마음, 그리하여 하나로 아울러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큰마음이 있을 때,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조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하고 제한적인 문화를 넘어 보편적이고 열린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던 위인들도 있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와 자신이 누리고 있던 특권적인 문화를 만민에게 전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불교의 원효 스님과 그리스도교의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러하다.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깨달은 바 있어 되돌아왔다. 그 뒤 스님은 요석



성 바오로



원효 대사

공주와 정을 통해 신라 십현(十賢)의 하나이자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을 낳았다. 원효는 승복을 벗고 박과 같은 악기를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무애가(無畏歌)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로 인해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하층민들까지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당시의 귀족 불교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불일(佛日)을 처음으로 빛나게 하였다는 뜻으로 원효(元曉)라고 자칭한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은 그런 원효를 거룩한 스님이라는 뜻으로 '성사(聖師)'라 칭하였다. 새 길을 연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던 것이다.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사도가 되었다. 사울은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 장차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인물이었다. 그는 예수를 추종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며 이탈하는 유대교 신도들을 체포하러 다녔다. 어느 날 청년대장으로 다마스쿠스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은 강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는 사흘간 앞을 볼 수 없었는데, 그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는 예수의 말을 듣고 회심하였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교여행길에 올라 유대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교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보편종교로 나가는 길을 닦았던 것이다.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사도 9,15)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바오로라 개명한 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이방인들이 어찌 하느님을 알 수 있었을까.

결국 원효 스님과 바오로 사도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 어떠한 차별과 제약도 있을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는 곧 문화다원주의의 발로이자 나아가 인류공동체에 대한 평등의식과 박애정신의 실천이었다. 가톨릭(Catholic)의 어의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오늘 타인과 타문화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견지에 서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르게 보고 있는가. 타인과 타문화를 배워 익혀 하나로 아우르고자 하는 넓고도 큰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나아가 민족, 인종, 문화, 사상, 종교 등을 초월하여 인류공동체에 대한 평등의식과 박애정신을 지니고 있는가를 돌아볼 시점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2

황인수 이나시오 성바오로수도회 수사

지난 호에 이어 게재되는 성 프란치스코 영성 순례는 다음 호에도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적빈'(赤貧), '매우 가난하다'는 뜻인 이 말은 한자를 그대로 풀면 '붉은 가난'이라는 뜻이다. 아마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벌거숭이 몸뚱아리 뿐이라는 말일 테니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선 프란치스코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을 찾기도 어려우리라. 이후 성인의 생애는 평생 더욱 가난해지는 길을 따라 걷는 여정이었다.

가난을 사는 첫째 방법은 밖으로 뺏치는 욕망을 끊는 것이다. 내게 없는 것을 거머쥐고 싶은 욕망을 끊어 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미 갖고 있는 것, 지키고 싶은 것을 버리는 일이 뒤따른다. 앞의 것이 밖으로 향하는 욕심을 버리는 일이라면 뒤의 것은 내 안에 숨은 욕심을 비우는 일이다. 성인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무렵 아시시의 구이도 주교가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다."고 하자 프란치스코가 대답한 말은 이것이었다. "주교님,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넘실대는 욕망은 쉽게 알아차



릴 수 있다 해도 내 안에 숨은 욕심은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것으로 넘어진 뒤에야 그것이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끝없이 자신을 비워 가는 가난의 여정을 걸어간 프란치스코의 청동상이 옛 재판정 마당에 세워져 있다. 주교관 마당,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인 성인의 동상 너머 푸른 하늘에 그가 사랑했던 제비 자매들이 자유로이 하늘을 날고 있다.



산 다미아노(San Damiano)

아시시 시내의 동남쪽 끝에 있는 문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를 지나 산 다미아노San Damiano를 찾아간다. 오래된 올리브나무들이 햇살 아래 서 있는 곳. 그 정경이 '이제부터 평화의

사도에게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고 말하는 듯하다. 창세기에는 홍수로 하느님이 사람들을 벌하셨던 때 세상이 온통 물속에 잠겨 생명의 기미가 없던 시간, 노아가 날려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화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으나 그때 하느님은 무지개로 당신과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보증해 주셨다.

산 다미아노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세 동료의 전기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산 다미아노 성당을 지날 때 그곳에 들어가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상 앞에서 열렬히 기도할 때 십자가상이 그에게 말했다. “프란치스코야, 보아라.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가서 나의 집을 재건하

여라.” 그는 몹시 놀라 벌벌 떨며 말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는 잘못 알아들었다. 오래되어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그 성당을 보수하라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는 기쁨에 넘쳤다.”

1205년 여름의 일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에는 두 가지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는 나환자와의 만남이고, 둘째는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만난 일이다. 고통 받는 인간이 프란치스코를 불렀고 고통 받는 하느님이 프란치스코를 불렀던 것이다. 모두가 세상의 집을 높이 세우려 몰려갈 때 하느님의 집은 무너지고 그 집에 갇들어 사는 인간은 고통 받는다.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그 바벨탑이 단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리라.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구조물들, 가령 피라미드라든가 만리장성이라든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다 그런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100년 200년이 지난 뒤 서울 강남의 저 높은 빌딩들은 다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다.

다미아노 성당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 성인은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는 데 헌신한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는 데 착수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쓰러져 가던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된다. 당시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이 꾸민 꿈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라테라노 성당이 무너져갈 때 불품없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 성당을 떠받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가 재건한 하느님의 집은 무엇이었을까? 프란치스코에게 하느님의 집은 가난이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기꺼이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9,10)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하느님은 나의 약함, 가난을 당신 집으로 삼으신다. 우리가 힘과 재물, 명예를



산 다미아노에서 아시시 평원을 내려다 보는 성 프란치스코.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아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일전에 존경하던 신부님을 찾아뵈었다. “교회 왜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라고 여쭙었더니 “건물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답이 돌아왔다. 그럴지도 모른다. 집이 커지면 집을 관리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세속 권력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정작 그 집에 사시는 분을 잊어버린다. 급기야는 잃어버린다. 13세기, 온 세상이 이렇게 하느님을 잃어버렸을 때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살며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을 재건하였다.

저녁 6시, 다미아노 성당의 광장 한편에 앉아 나무 수사와 성무일도서를 펴든다. 이국 땅에서 바치는 찬미가 곡조가 따뜻하다.

눈부신 광명으로 낮을 만드사
만물을 비추시는 하느님이여
이제는 하루해가 저물었으니
주님의 영광 앞에 비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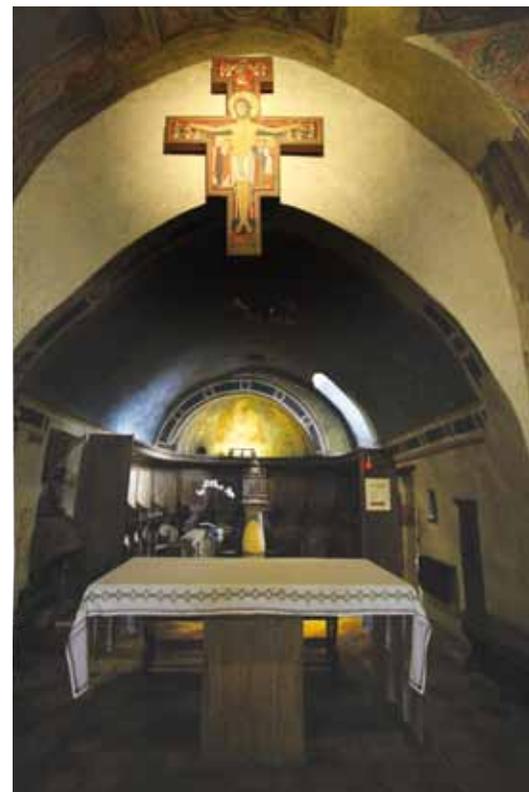
.....

- '제2주간 목요일 저녁 기도 찬미가' 중에서

산 다미아노 성당 아래쪽으로 양 떼가 지나간다. 목자 뒤를 따르는 양들 목의 방울 소리가 쟁그렁 쟁그렁 들려온다.

성녀 막달라 마리아 경당

아시시 평원에 있는 리보 토르토로 가는 길에 따라가면 길 왼쪽에 아담한 성당이 하나 나온다. 성녀 막달라 마리아 성당. 프란치스코와 나병환자의 만남을 기억나게 해 주는 곳이다. 이곳은 본래 아르체의 성 라자로 병원이 있던 곳인데 1330년 이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봉헌되었고 지금



은 이렇게 작은 성당으로 남아 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남긴 유언의 서두에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회개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서는 나병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성 막달라 마리아 경당 안의 나환자를 돌보는 성 프란치스코 상.

성당 안 제대 오른편에는 나병환자와 그를 돌보는 성인의상이 있다. 우느라 일그러진 나병환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고, 프란치스코는 무릎을 꿇은 채 그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연민에 찬 성인의 표정이 생생하다. 성당 안의 명패에는 성인과 나병환자 사이의 역사가 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병환자를 포용한 일, 다시 말해 나병환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은 성인의 기억에서 자신의 회심을 시작하는 걸음으로 여겨질 정도로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프란치스코의) 유언에 따르면 (나병환자를 포용한) 체험은 산 다미

아노에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만난 일에 필적한다. 즉, 그는 나무판 위에 그려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나병으로 원래 자기 모습을 잃은 사람의 얼굴에서 ‘생생히 살아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만난 것이다.

어떻게 형제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할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님을 복음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둘 사이를 자꾸 갈라서 그것을 우열의 관계로 두거나 심지어는 기도만 할 것이지 왜 형제에게, 세상에 관심을 두느냐고 타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그리스도교를 배반하는 일이다. 루카 복음을 보면 사랑의 이중 계명 다음에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우리 성직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그러나 사제가 된 이후 우리는 가난을 차차 잊게 되었다. 가난하지 않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모르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아픔이 없으니 사랑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와 고통을 인식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다. 아픈 자기 고백이라고 할까. 추기경께서 가난하고 소외 받은 이들을 자주 찾아가셨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기경 이야기가 나왔으니 프란치스코의 초기 동료 가운데 하나인 에지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 보자.

에지디오는 기지 있는 말을 잘 하기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추기경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들은 에지디오에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분께서는 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저보다도 믿음의 덕과 희망의 덕이 월등하시니까요.” 무슨 뜻이냐고 그들이 묻



리보토르토의 성당.

자 에지디오가 대답했다. “추기경님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영예와 영광을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도 구원되기를 바라고 계시니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벌 받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형제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강생이라든가 육화 같은 어려운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삶은 결국 그것이 아니었던가.

말을 타고 가던 부장집 아들이 길을 멈추고 전에는 역겨워하던 천형의 환자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나병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친구가 되었다. 이는 ‘세리와 죄인들의 벗’(마태 11,19)이라는 타박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었다. 성녀 막달라 마리아 성당의 소박한 제대 앞에서 나도 속으로 물어본다. 너는 누구의 친구인가? 너는 누구의 벗인가?

리보토르토(Rivotorto)

그대 집 앞으로 나를 이끄는 / 길고 구불구불한 길.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길 / 전에 보았던 그 길이
언제나 나를 여기 / 그대 집 앞으로 이끌어 오네.

비틀즈의 노래 ‘길고 구불구불한 길(The long and winding road)’을 흥얼거리며 리보토르토(Rivotorto)로 가는 길을 걷는다. 리보토르토는 ‘구불구불한 냇물’이라는 뜻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첫 공동체가 있었던 곳. 지금은 그 자리에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의 공동체가 있다.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하지만 1181년에 태어나 1226년에 세상을 떠난 성인의 짧은 지상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위해 그분을 따라 길을 걷는 여정이었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으니 그의 시작이 ‘구불구불한 냇물’에서부터였던 것은 의미가 있는 셈이다. 1205년 스물 넷의 나이로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의 부름을 들은 뒤 그는 허물어져 가는 성당을 수리하기도 하고 나환자들에게 봉사하기도 하면서 길을 찾는다. 그가 첫 두 형제를 만나 이곳 리보토르토에 공동체를 꾸린 것은 1208년 4월 16일의 일이었다.

수도원 성당에 들어서니 막 주일 미사가 시작되는 참이다. 입당 성가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곡을 붙인 ‘내 모든 말(Ogni mia parola)’. 유학 시절 배워 귀에 익은 성가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네. 나의 말도 내가 보낸 뜻을 이루지 않고는 내게 돌아오지 않으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말씀을 듣는다. 내용은 다르지만 한 분에게서 오는 말씀, 그것이 소명이다. 프란치스코에게 그 말씀은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들은 “가서 나의 집을 재건하여라.”였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지키고 살 형제들이 생긴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첫 두 동료는 퀴타발레의 베르나르도와 피에트로 카타니인데 처음으로 성인에게 합류한 퀴타발레의 베르나르도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화가 전한다.



영화 속 '인간과 세상' '함께한다'는 것

이대현 요나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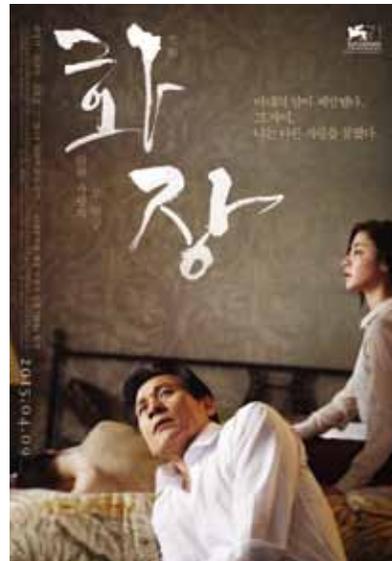
누구도 타인을 대신해 아프고, 죽을 수는 없다. 자신의 냄새 나는 몸을 씻겨주는 남편에게 “미안해.” 하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라는 아내의 절규가 생생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든다.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은 '불가(不可)'에 관한 영화다. 누구도 타인의 죽음과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는 무력감, 외로움, 절망을 냉정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한다. 살아가야 하는 자도, 죽어가는 자도 둘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만을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더 슬프고 아픈 영화.

원작인 김훈의 소설부터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슬픔조차 과장하지 않았다. 그러니 임권택 감독이라고 선불리 어설픈 동정이나 연민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설도, 영화도 잔인하다. 어찌랴. 그것이 삶의 진실인 것을.

<화장>은 죽음 앞에 선 평범한 인간에 대한 섬세하고 솔직한 묘사다. 뇌종양 말기인,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를 둔 50대 중반의 화장품회사 중역인 한 남자의 현실에 소설도, 영화도 솔직하다. 아니 인간에 대한 솔직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알리는 심전도 계기판의 삐삐 하는 소리, 가파르게 드러난 치골, 배터리가 끊겨 휴대폰이 죽는 소리, 질긴 아내의 울음, 전립선이 부어 요도에 호스를 꽂고서야 찌르륵하고 오줌이 떨어지는 소리, 아내와 닮아있는 딸의 어깨의 둥근 곡선과 힘 없어 보이는 잔등, 염이 끝나 긴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아내의 몸, 희고 가벼워 보이는 흩뿌려진 뼈 조각들이 들려주고 보여 준다.

절규도 통곡도 없다. 죽어가는 아내(김호정)의 시선이 아닌, 살아가야 할 자인 남편 오장석(안성기)의 불안, 고통, 공포,



드라마/ 2015.4.9/ 94분/
한국/ 청소년관람불가/ 감독 임권택



<화장>은
죽음 앞에 선
평범한 인간에
대한 섬세하고
솔직한 묘사다.
인간에 대한
솔직함을
드러낸다.

절망, 고민, 포기, 슬픔이 일상인양 무심히 지나간다. 매일 퇴근 후 병실을 찾아 아내의 냄새 나는 몸을 씻겨 주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아내를 다독거리 주면서도 오장석은 결코 아내의 죽음이나 고통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는 결코 아내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 오 상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아내의 고통을 보며 그로 인한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뿐이다.

누구도 타인을 대신해 아프고, 죽을 수는 없다. 자신의 냄새 나는 몸을 씻겨주는 남편에게 “미안해.” 하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라는 아내의 절규가 생생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든다. 솔직히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오장석은 아내가 이제 그만 죽기를 바랐다고 고백한다. 그것만이 사랑이고, 진실일 것이라고 했다. 살아가야 할 자의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두려움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여보, 울지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있어서 뭘 어찌겠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오 상무는 위선자인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공허한 줄 알지만 달리 해 줄 말이 없다는 사실을. 현실 삶에서는 기적은 없다. 기적이 있다면 소설이고, 영화이다. 오 상무에게 아내가 뇌종양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무력감과 죄책감, 그래도 남편으로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의무감 사이를 오간다. 그게 인간이다.

임권택 감독은 <서편제>에서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남녀 주인공들처럼 오 상무의 그런 모습들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다. 1인칭 독백의 편지 형식과 달리 회사 부하 여직원인 추은주(김규리)에 대한 오 상무의 욕망과 환상을 강렬한 이미지와 구체적 행위들로 묘사로 했지만, 그것은 영화적 특성을 고려한 변주일 뿐, 자신의 삶과 죽음,



운명에 관한 근본적인 시선과 마음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 죽음에 대한 노(老)감독의 관조가 영화를 더 처연하고 애잔하게 한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비록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진 둘을 기억과 사랑으로 연결해 준다. 아내가 죽은 후 “아빠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라는 딸의 질문에 오 상무는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들었지.”라고 말하고, 아내의 유품을 태우다 낡은 옛 지갑 속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추은주와의 만남을 끊어버린다. 이런 것이야말로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임권택 감독의 믿음 탓이리라.

감독의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배우 안성기는 영화 <화장>에서 세 번의 눈빛으로 그것을 드러내 준다. 고통으로 발버둥치는 아내를 잠재우고 창 밖을 내다보는 뺨 뚫린 듯한 눈빛, 회식 후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다가 추은주를 다시 만나러 술집으로 되돌아오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그만두고 골목길을 혼자 걸어갈 때의 자기연민의 눈빛, 마지막 죽은 아내의 지갑에 간직된 자신의 옛 사진을 보고는 정신 간간 사람처럼 맨발로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회한의 눈빛. 안성기가 왜 안성기인지를 보여 주는 연기다.

그 눈빛이 오래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바로 ‘나’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이입만큼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리고

영화의 감정과 언어들이 내 것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경험의 공유’만큼 감정이입에 좋은 것도 없다. 영화 <화장>을 보면서 아프고, 부끄러웠다. 지난해 아내 역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다. 아내는 고통과 불안과 절망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럴 때마다 난 그 고통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모른 채 영화에서 오 상무처럼 “울지마, 내가 있잖아.”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아내의 고통이 주는 나의 고통에만 신음하였다.

지금도 아내는 항암치료 후유증과 최근 폐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징후로 이따금 밤 늦은 시간 어두운 소파에 앉아 몰래 운다. 어느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라.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든 상관없다.”고, 어쩌면 그것만이 나와 아내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 기도가 언제 어디서 서로 만날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성화에 얽힌 이야기

즉시 떠나라

고종희 마리아 한양여자대학교 실용미술과 교수

‘사색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기록하라, 그러라.’ 다빈치의 모토다.

성모님의 일곱 가지 기쁨을 담은 7각 목주기도를 바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떠나라.”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다.

제1락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에 대한 묵상이다. 이 소식을 마리아께 알리기 위해 대천사 가브리엘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먼 길을 떠나왔다.

제2락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이다. 성모님께서 잉태 고지를 받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즉시 길을 떠나셨다. 100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이라고 한다. 천사가 전해 주신 그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엘리사벳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지체 없이 떠나셨을 것이다.

제3락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에 대한 묵상이다.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차로도 몇 시간 걸리는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다. 성모님은 바로 이 먼 길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을 출산하셨다. 이미 만삭이 된 몸으로 먼 길을 떠나시는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행 중에 요셉 성인께서는 성모님을 참으로 자상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사는 마구간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출산하셨다.

제4락은 마리아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성모영보>
패널에 템페라와 유채, 98 X 217 cm, 피렌체, 우피치

수님을 보여 주심이다. 이번에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왔다. 별을 따라 온 그들은 별이 멈춘 곳에서 세상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렸다.

제5락은 마리아께서 기쁨 중에 잃었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에 대한 묵상이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 이 단란한 성 가정이 파스카 축제를 위해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수백 킬로미터의 여행을 떠나셨다.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예수님을 잃고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매셨다. 그 고통이 어떠하셨을까? 그런데 성전에서 아드님이 율법 교사들과 당당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사건

역시 여행 중에 일어났다.

제6락은 마리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저세상을 여행하고 오셨다. 거리는 알 수 없으나 아주 신비로운 여행이었을 것이다. 성모님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그런데 그 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어머니께 모습을 드러내셨다. 아들이 군대에서 잠시 휴가를 나와도 될 듯이 기쁘게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성모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제7락은 마리아께서 하늘에 올라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심이다. 오! 우리의 성모님께서 이번에는 정말로 먼 여행을 떠나셨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신 것이다. 떠남의 하이라이트다.

떠나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바오로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각기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다. 나도 늘 떠나고 싶다. 학생들에게도 떠나라고 권한다. 내가 쓴 책들은 거의 다 여행의 결과이다. 전에는 역마살이 끼어서 여행이 팔자소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특은인 것 같다. 이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청한다.

다빈치의
작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잘 그려서가
아니라
다른 이와
다르게
그렸기
때문이다

다빈치도 떠났다.

잘나가는 고향을 버리고 먼 길을 떠난 이가 있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이다. 다빈치가 피렌체에서 활동할 무렵 그곳은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르네상스 문명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빈치는 지체 없이 고향 피렌체를 떠나 생소한 밀라노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25년을 머물렀다. 생의 대부분이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밀라노로 떠나기 전 피렌체에서 그린 <성모영보>다. 옛 화가들치고 이 주제를 한번쯤 그려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다빈치의 이 작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잘 그려서가 아니라 다른 이와 다르게 그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의 외관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기후를 포함한 자연의 현상을 담고자 하였다. 그림 앞쪽에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아기를 잉태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성모님은 독서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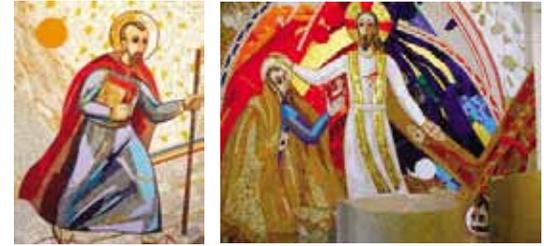
그림의 핵심은 그러나 주인공인 앞의 인물보다는 배경이다. 수종을 알 수 있는 나무들, 물안개 핀 호수, 그 위에 떠 있는 희미한 배, 운무가 낀 뿌연 산. 하늘인지, 산인지, 호수인지, 구름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배경의 풍경. 다빈치는 이를 통해 자연의 현상과 본질을 그리고자 했다. 다빈치는 아틀리에를 박차고 나가 자연을 관찰했다. ‘사색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기록하라, 그려라.’ 다빈치의 모토다. 다빈치의 모든 작품은 그것의 결과물이었다. 다빈치는 호기심과 진리를 찾아 늘 떠났던 것이다. 



로마서 특강

거저 주시는 의로움

임숙희 레지나 엔아르케 성경삶연구소 대표



로마 1,18-3,20의 문맥

1,18-3,20에서 바오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진노’(1,18)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2,1-1 참조). 바오로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특권인 율법(2,12-24 참조), 할례(2,25-29 참조), 하느님의 약속(3,1-8)이 미래에 있을 하느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이 특권도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경고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3,9-20 참조). 사실 바오로는 1,18-3,20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에게 자랑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보면 1,18-3,20은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다룬 3,21-31을 준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1-26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3,27-31에서는 앞 단락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저 주시는 의로움

바오로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

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1,18)라고 말할 때, 의화 앞에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불순종 안에 가두어져”(로마 11,32) 있고 하느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 자녀가 되도록 불리었는데 인간이 자녀가 되는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유가 그런 소명을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바오로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 그 시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범주를 택합니다. 당시에 인간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비유대인들은 죄인들로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바오로가 보기에는 선택된 하느님 백성인 유대인들도 비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경건한 유대인도 인간이 보기에는 의롭게 보여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오로는 시편 143,2을 빌려서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로마 3,10). 여기서 바오로가 인간은 죄인이며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오로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오로가 그의 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하느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인간을 멸시하지 않고 반대로, 인간을 용서하면서, 인간을 진보시키고 그를 당신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으십니다. 인간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들을 밝혀 줍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하느님의 의로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로마 3,21-24).

신앙에 의한 의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로마 3,21-26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기 의화도 배제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들만 의화되는 것도 배제합니다. 의화는 각 사람의 기원이 무엇이든지 그가 속한 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각자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에서 하느님이 분노를 보이시는 것 같지만 분노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죄 앞에서 하느님의 분노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어 죄인들 사이에 서십니다.

바오로가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말할 때, 바오로는 율법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임을 벗겨냅니다(갈라 2,16 참조). 율법은 그

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양심을 교육하고 하느님의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율법이 갈망하는 것을 계시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율법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의화는 신앙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앙은 자기중심주의 안에 있는 빠져 있는 인간이 거기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은총을 받기에는 부당한 처지에 있고 그리스도와의 친교로 들어가기에는 무능력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 은총과 친교를 선물로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 따른 의화

의화(디카이오시스, 동사는 디카이오오)는 '의로움'(다카이오쉬네)라는 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생활 방식'이나 하느님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흠 없는 삶을 뜻합니다. 바오로는 이 개념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적용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중요한 모델로 빌려 옵니다. 바오로는 로마 4,2-3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창세 15,6)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윤리적 온전함보다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유로움을 강조합니다. 하느님

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신앙이란 하느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며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신이 한 일의 대가로 신앙을 받거나 돈을 주고 신앙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오로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궁극적인 선물, 곧 신앙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맺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필요한 것은 그 선물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 곧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함으로써 하느님이 선물로 마련해 주시는 미래의 왕국을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가톨릭교회가 면죄부를 비롯한 여러 의식을 신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바오로의 깊은 통찰이 변질된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들이 선행을 통해 구원을 대가로 받는 것, 마치 물건을 사듯 상자 안에 들어있는 구원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신교나 가톨릭은 서로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가톨릭은 선행과 성사와 교회를 강조한 반면, 개신교는 오로지 신앙과 하느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의 결단을 강조한다고 믿으며 이분화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20세기 말 개신교와 가톨릭의 진지한 대화 모임을 통해 몇 가지 오해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루터교와 가톨릭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넘어 행동하지는 공동선언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화, '이미' 그러나 '아직'

의화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의화는 자비나 용서만이 아니라 창조자의 질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행위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느님께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를 변형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화는 성령의 지속적인 선물입니다(로마 5,1-11). 오로지 살아있는 하느님의 숨만이 우리 존재를 심오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한번 자유로워진 사람, 의화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에 의해 사로잡힌 존재로 살면서 새롭게 쇄신된 삶,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 계획은 우리를 당신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에페 1,3-6). 그런 사랑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유와 존엄성의 뿌리가 됩니다. 이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성을 통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방인 세계나 행위에 집착하는 유대 세계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 메시지가 바오로 당시에 '기쁜 소식'으로서 주어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으로

의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 2,20)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삶에서 이 기쁜 소식을 깊게 체험했습니다. 바오로의 체험은 체험만으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학적 진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만약에 의화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 의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지금도 의롭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가다의 음악편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얼마 전 한 신부님으로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좋은 작품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 다. 그 신부님은 지난해부터 꽤 오랜 기간 유명 레코 드사의 명곡 컴필레이션 음반 여러 장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도 기억하기 힘든 작곡가들의 생몰 연도를 줄줄 외우실 만큼 열의가 있는 분이었죠. 그렇게 남다른 워밍업 기간을 거친 분이 ‘본격적으로’ 클래식 감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곡이 좋을까 이틀 쯤 고민하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작곡가와 작품 제목을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작품을 추천해 드리고 이제 일주일일이 지났는데요. 잘 듣고 계신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긴 곡이었나?’, ‘곡에 대한 짧은 설명이라도 메일로 보내 드릴 걸 그랬나?’ 살짝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저의 추천 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신부님을 포함해 클래식 음악 감상에 뜻이 있는 신자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창작 배경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바로 이 음악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면을 취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작곡됐다는 것인데요. 바흐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한 귀족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자, 그 귀족의 머리맡을 밤마다 지키고 있는 전속 음악가가 연주할 수 있도록 이 작품을 작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베르크’라는 제목은 바로 그 전속 음악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화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청취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은 듣다 보면 자장가처럼 잠이 잘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종교작품이 아니었음에도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음악에 임하는, 삶에 임하는
바흐의 태도를 느낄 수가
있었죠.



악보출처: http://en.wikipedia.org/wiki/Goldberg_Variations#/media/File:Bach-goldberg-aria.png

일단 70분을 훌쩍 뛰어넘는 곡의 길이가 소설로 치자면 장편소설에 해당하니까요. 70분! 말이 그렇지, 단 한 대의 악기로 한 시간이 넘는 긴 대곡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악회에 가서 듣는다면 모를까, 집에서 음반을 통해 전곡을 듣는다는 것은 더욱 그렇죠.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한 시간 넘게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중팔구 다른 볼일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전곡 감상은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말죠.

연주자의 입장에서도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만만치 않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만일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챙겨가겠느냐는 질문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악보를 챙겨, 여생을 모조리 들이부어도 모자랄 만큼 연습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을 만큼, 시간과 공력을 필요로 하는 작품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흐는 이 대작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긴 여정은 ‘아리아’라고 하는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오른손이 한 선으로 된 멜로디를 연주하고 왼손이 반주를 하는 단순한 구성의 이 아리아는 곧 이어질 서른 개 변주곡의 모태입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이 멜로디를 가지고 바흐는 아리아의 화성 진행은 유지하는 가운데, 서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음악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중에는 16분음표의 빠른 진행으로 생기가 가득한 곡이 있는가 하면, 더욱 차분한 분위기로 감상에 젖어들게 만드는 곡이 있고, 카논의 모습을 한 곡도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곡도 있고, 바흐가 가족

들과 즐겨 불렀다는 독일 민요가 절묘하게 끼어 들어간 곡도 있죠. 그렇게 각양각색의 서른 개의 변주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낸 바흐는 작품의 마지막에 처음에 들었던 그 단정한 아리아를 다시 한 번 배치합니다. 같은 곡이지만 긴 여정 끝에 다시 만나는 이 아리아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와도 같은 이 아리아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마치 인생의 이치와 닮아 있다며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작품을 공연장에서 실제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반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음악이었지만, 공연장에서 듣는 이 작품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집중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모습도 존경스러웠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른 개의 다채로운 변주를 이끌어낸 작곡가의 아이디어와 능수능란함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작품이 아니었음에도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음악에 임하는, 삶에 임하는 바흐의 태도를 느낄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바흐의 명곡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드렸는데요. 알게 모르게 이 작품의 단편들은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접하셨습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 <양들의 침묵>, <설국열차> 등 유명한 영화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됐으니까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에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어떤 맥락으로 등장했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수면용으로라도 좋으니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가까이 지내시고 계세요!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본부에 권길중 초대 회장 취임**

권길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이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본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4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2015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대회에서 권 회장은 7대 종단을 대표해 중앙본부의 첫 대표직을 맡게 됐다.

권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우리부터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의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기러기의 비행을 비유해 “일곱 종교의 평신도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기러기처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국민들 서로 화합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본부는 종단별로 실행위원을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천주교 측 실행위원으로는 정성연 한국평협 부회장과 박철용 한국평협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한편 ‘이웃종교 화합주간’은 종교 간 이해와 화합,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종교 간 일치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 **2015년 첫 상임위원회의 개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는 지난 4월 10일부터 1박2일간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에서 올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전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6개 교구 평협 중 13개 평협과 3개 상임단체장, 한국평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 개막미사를 주례한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교황님은 참으로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변화와 변혁을 강조하신다.”며 “우리 스스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난을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 주교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민족화해 활동에 대한 관심, 중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권길중 회장은 지난 31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한 ‘7대 종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실천과제를 위한 세미나’에서 했던 기초강연 내용을 설명하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황님 기대에 부응하여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기 위해 일치

를 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전개방안과 평화네트워크의 구성과 추진에 대해 5개조

로 나누어 토론하고, 각 교구별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복자 124위 시복 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 · 시성 기원 전국성지 순례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손희송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의 여정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의 8개 성지를 순례하는 ‘복자 124위 시복 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 · 시성 기원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평협 담당이며 교구 사목국장 손희송 신부와 평협 임원, 일반 참가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성지순례는 지난 4월 새로 개통된 호남선 KTX를 타고 출발했다. 순례자들은 출발에 앞서 이번 성지순례가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

로 복자품에 오른 순교자 124위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내려놓는 감사와 기쁨의 순례길이 되기를 바라며 손 신부의 강복을 받았다.

서울평협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조화수) 위원들의 안내 봉사와 함께 첫날 일정은 광주대교구 나주 순교자기념성당에서의 미사로 시작됐다. 손 신부는 강론에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께 선택되어 그분 사랑 안에 있으나 노력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예수를 거스르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열렬한 신앙과 사랑이 우리 것이 되도록 2박3일간의 순례를 통해 청하자”고 했다.

첫 날 저녁 특강에서 손희송 신부는 ‘우리시대의 교황님’에 대해

비오 12세부터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역대 교황님들의 훌륭하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며 “교회 역사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어지러운 현 세상 속에 훌륭한 교황님과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가톨릭교회의 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둘째 날 순례단은 마산교구로 넘어가 문산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뒤, 복자 정찬문, 구한선, 윤봉문 묘를 차례로 순례하였다. 이날 순례 중에는 거제시에서 추진한 둘레길인 ‘섬&섬길’의 ‘천주교 순례길’ 코스 가운데 예구포구에서 공곶이까지의 산길과 바닷길이 어우러진 구간을 걸었다.

마지막 날에 복자 박대식 묘와 신석복 묘를 순례하고 마침전례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수도자를 위한 성모의 밤**



서울평협이 주최하는 성모의 밤 행사가 지난 5월 1일 저녁 명동대성당 성모동산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성모의 밤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을 ‘봉헌생활의 해’로 정하며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도자들을 격려하고 수도성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해를 지내도록 권고하심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시작전례를 주례한 정순택 주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주인공으로만 살려고 하는 오늘날 세상 안에서 봉헌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서로 기쁘게 나누고 살면서 사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자.”고 당부했다.

수도생활의 기쁨을 체험사례로 발표하는 시간에 바오로 딸 수도회 이명옥 수녀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히는 게 행복하고, 매일 매일의 부끄러움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며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수도성소에 대해 얘기했고, 성 바오로수도회 안기주 수사는 수도생활 중에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수도자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소곤소곤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도직, 수도자의 삶은 모든 것이 행복투성이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꽃 봉헌과 촛불 봉헌에 이어 함께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5단을 바치고,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권길중 회장은 끝인사에서 “평협은 오늘의 성모의 밤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해 주신 여러분께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 교회를 일치시켜 주시고, 기쁨 가득한 삶으로서 행복한 봉헌생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서울평협 회원단체 지원사업
통해 15개 단체 지원 결정



서울평협은 지난 4월 21일 서울평협 하상방에서 올해 지원이 결정된 15개 회원단체에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올해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아시아 청년노동자 세미나와 연령회 연합회의 연도 녹음사업 등 15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총 49,280,000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 3월 10일까지 신청된 17개 회원단체의 18개 사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서울평협 담당인 손희송 신부가 함께한 전달식에서 권길중 회장은 “더 많은 단체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싶지만 적은 예산의 한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적은 돈이지만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위해 크게 써 달라.”고 인사말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를 청했으며, 지원증서 전달 후 손 신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드리는 돈은 평협의 예산이므로 결국 평신도 주일 헌금으로 서울대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모은

돈”이라고 전제한 후 “교구의 모든 신자들의 뜻을 담아 값지게 써 달라.”고 격려했다.

● 서울평협 ‘답게 살겠습니다 시작하는 날’ 행사 개최
한목소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다짐



서울평협은 지난 4월 8일 명동파밀리아 채플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총대리 조규만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사도직단체장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시작하는 날’ 행사를 마련하고, 최근 7대 종단과 함께 벌이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신앙인들이 먼저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오프닝 행사에서 권길중 회장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각자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지 결의를 봉헌하자.”고 말했다.

운동 취지 발표에 이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쇄신을 다지는 선언문과 자기성찰과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함께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에서 “평신도가 솔선수범으로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참으로 반갑다.”며 “우리 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점에서 존경과 치하를 드리고, 함께 동참하며 열렬히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만 주교는 “답게 살기는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우리가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지 알아야 하는 정체성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 운동이 작은 시작으로 출발해서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프닝 행사에서 트리니타스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우리의 다짐을 결의하는 시로 원로시인 김형영 형제의 ‘하느님의 꿈이 저희 안에 계시기에’라는 시가 낭송됐다. 한편 이날 염 추기경은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추진본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격려했다.

2부 미사에서 참석자들은 오프닝 행사 때 받아 작성했던 각자의 다짐메모를 봉헌했고, 염 추기경 역시 ‘착한 목자로서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직접 읽고 다짐 나무에 걸었다.

●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미사와 음악회 개최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와 순교자현양회(회장 양두석)가 주관하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미사와 음악회’가 지난 5월 29일 금요일 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됐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고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와 최창무 대주교, 우수일 주교 등 사제단이 함께 집전한 미사는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124위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염 추기경은 “순교의 생활은 철저히 십자가를 지는 생활로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순교의 삶,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무척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순교자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사 후 이어진 음악회를 앞두고 조규만 주교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직 잘 모른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훗날 알게 될 것이며, 순교 선조들을 기리며 음악회를 즐기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지환이 지휘하는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민조, 한경성, 테너 강훈, 바리톤 김정석, 카운터테너 이상준 등의 솔로와 협연과 함께 순교자현양회 합창단과 트리니타스 합창단이 출연해 감동의 시간을 이어갔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신임 회장에 조흥기 마티아
조흥기 형제(마티아 · 71 · 춘천 퇴계동본당)가 지난 5월 23일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춘천평협) 회장에 임명됐다.

춘천평협은 올해 정기총회에서 조 회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23일 춘천교구청 경당에서 교구장 김운회 주교 주례 미사 중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 사목회장, 교구 단체장
연수 개최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회, 담당사제 안규태 이하 인천평협)는 28일(토) 교구청 4층 대강당에서 ‘성가정의 해’를 맞

아 본당 사목회장단 및 교구 단체 장 연수를 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고 최 주교는 강론에서 “교회의 수호자는 평신도이며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꾸르실료협의회 본당 올뜨레아 신임 간사 교육**

3월 21일(토) 가톨릭회관에서 인천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주간 김명훈, 담당사제 성만) 주최로 본당 올뜨레아 신임 간사를 대상으로 간사 교육을 실시했다.

● **ME 조장 교육**

인천교구 ME는 4월 11일, 18일에 걸쳐 (구)박문여고강당에서 본당 ME 조장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이고, 본당 나눔 활성화를 돕기 위한 본당 ME 조장 교육을 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성령쇄신봉사회 2015 상반기 수원교구 치유피정**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이종운, 담당사제 정광해)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양대리구 하우현성당 기도의 집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상반기 수원교구 치유피정’을 실시했다.

첫째 날인 18일 ‘말씀을 통한 치유의 날’에는 인천교구 조명연 신부의 강의, 용인대리구 죽전1동하늘의문본당 주임 윤민재 신부의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기도 및 안수’에 이어 감사미사가 봉헌됐다.

‘빠다킹 신부’로 잘 알려진 조명연 신부는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성경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의 후 치유기도 및 안수에 이어 피정 참가자들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둘째 날인 19일 ‘말씀과 성사를 통한 치유의 날’에는 서울대교구 다솜터 심리상담소 소장 이찬 신부의 ‘상처 · 우울증 · 분노의 극복’ 강의를 있었으며, 정광해 신부의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기도 및 안수’에 이어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 **수원교구 ME 설정 제35주년 가족모임**



수원교구 ME 설정 제35주년을 맞는 ME 수원협의회(대표 조봉훈 호경애 부부, 담당사제 김봉기)는

5월 5일 장안대학교 실내체육관에 ME가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1코린 9,22)”라는 주제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1부 행사는 접수 및 식전행사, 입장, 개회식, 동영상 및 축사, 내빈 소개, 주제 나눔, 사랑의 편지 낭송이 마련되었고, 2부 행사는 찬양 및 풍물놀이, 성극(마재의 성가정),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식전행사에서는 대리구별로 주제 조형물 제작 및 설치 그리고 대리구기와 지구별기, 대형 ME기, ME 수원협의회기가 입장하였다.

수원 ME 대표팀 부부는 환영사를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신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 ME 가족은 하느님의 영광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 친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ME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축사에서 ME 한국협의회(대표 이재빈 · 윤봉희, 담당사제 최준웅)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것은 결심이다.’라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 레지아 청년 브레시디움 성모의 밤**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김상국 · 담당사제 이근덕)는 5월 9일 청년 브레시디움 단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성모성지에서 성모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성모의 밤은 1부 - 성모의 밤 미사 봉헌, 2부 - 돌 묵주기도 15단 봉헌, 3부 - 찬양, 연주, 성가, 시낭송, 성모님께 바치는 편지 낭독, 초 · 장미 · 편지 봉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성모의 밤 미사를 주례한 교구 청소년국 부국장 박경민 프란치스코 신부는 “수원교구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 활동, 체험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국 단장은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에서는 청년 단원들에게 영성적 도움을 주고자 피정,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덕 신부는 성모의 밤 행사 마치면서 “예쁜 마음으로 성모님과 20대 청춘의 열정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잘 꾸며 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 **제14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회장 윤용현 · 담당사제 전삼용)는 5월 10일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제14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를 열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야외미사 강론에서 “오는 6월 청소년 대회를

열면 ‘어린이복사단에서 장년층까지’ 있는 축선련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축구를 통한 선교의 역군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제14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 ‘선교 리그’(6개 본당 참가)에서는 성남대리구 분당성마태오본당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안산대리구 안산성마르코본당과 안양대리구 오전동본당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존의 축구 리그를 ‘장년 리그’와 ‘청년 리그’로 세분해 개최한 첫 대회였다.

분당성마태오(선교 리그) · 평촌(장년 리그) · 화서동(청년 리그)본당이 우승하였다.

● **수원 레지아 소년 브레시디움 야외행사**



수원 천지의 모후 레지아(단장 김상국, 담당사제 이근덕)는 5월 10일 소년 단원 1260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 성모 성지에서 야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

는 제3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근덕 신부는 “성모성월의 날을 맞이해 남양성모성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 행사를 하게 되어 너무나 좋고, 기쁘고, 소년 단원들에게 감사하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소년 단원들이 성모님의 사랑 듬뿍 받고 사생대회를 통해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 하면서 열심히 놀고,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고 오후에 함께 미사봉헌하면서 오늘 하루 성모님의 사랑받고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국 단장은 “소년 브레시디움 단원은 레지아의 미래이고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라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은 성모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소년 단원들이 레지아 활동과 잘할 수 있도록 수원 레지아에서는 교육, 피정, 체육대회,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티마 성모발현 제98주년 기념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미사**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회장 전영환 · 담당사제 노성호)은 5월 13일, 안성에 위치한 죽산 순교성지에서 6개 대리구 각 본

당의 셀(Cell) 회원들과 일반신자 1200여 명이 참례한 가운데 교구 총대리 이성호 주교 주례로 '파티마 성모발현 제98주년 기념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봉헌했다.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파티마 성모상 행렬과 대관식에 이어 봉헌된 미사는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다.

이성호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올해 파티마 성모발현 98주년 기념미사의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聖化)에 맞갖은 삶을 살자.'"고 말했다.

미사 전 특별 강의를 통해 최덕기 주교는 "푸른 군대라고도 불리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의 셀 회원 여러분의 기도 · 희생 · 봉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46차 정기총회



원주교구 평협은 1월 24~25일 치악산 드림랜드 유스호텔에서 임원과 각 단체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동

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 사업보고와 2015년 사업승인을 했다. 올해 교구 설립 50주년 행사와 관련된 많은 의견과 토론 그리고 교구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교구장 김지석 야고보 주교는 "그동안 사목교서를 통해 10년 동안 50주년을 준비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사보다 영적 성장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함께 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와 공동으로 성령쇄신 창립 10주년 기념 성령대회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문호)는 성령쇄신봉사회(회장 두현자, 담당사제 김영철)와 공동으로 '2015년 성령대회'를 가졌다.

지난 5월 5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경기 남양주 소재)에서 3,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창립 10주

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열린 것이다.

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는 축사를 통해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교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며, 교구 신자들이 한층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여 하느님의 현존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신앙 쇄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라는 결실을 가져 왔다."고 치하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4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박해룡, 담당사제 박영일)는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대구 성서 실내 게이트볼 구장에서 제4회 대구교구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를 대구대교구 평단협 주최, 가톨릭 선교게이트볼 동호회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교구 총대리 하성호 요한 신부가 교구장을 대리하여 격려사를 하였으며 만촌1동 성당이 우승을 차지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평협 본당 회장, 단체장 춘계 연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덕곤, 담당사제 배기현)는 4월 25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본당 회장, 교구 단체장 춘계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60여 명의 회장 및 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연수는 개회 미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표와 전체 토론, 그리고 평신도의 영성 의제 발표, 평신도운동선언(답게 삼시대)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교구청 이전과 관련한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평신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전례꽃꽂이회 피정



교구 전례꽃꽂이회 회원을 위한 피정이 4월 21일 마산가톨릭교육

관에서 있었다. 이번 피정은 김정훈 신부(성소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김정훈 신부는 강의를 통해 "중국의 경전인 중용(中庸)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열린 교회, 열린 하느님 백성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 가톨릭 문인회 성지순례



교구 가톨릭문인회(회장 김연희, 담당사제 황인균) 회원들은 3월 28일 거제시 일운면 순교복자 윤봉문 요셉 성지를 순례하였다. 이날 순례에는 회원 및 가족 22명이 함께하였다.

이번 순례는 '윤봉문 요셉 성지의 역사와 순교자 영성'이란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최경식 야고보 신부(지세포성당 주임)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강의를 듣고 '십자가의 길' 기도와 순교자 윤봉문 요셉의 유해가 있는 묘에서 순교자 윤봉문 요셉과 한국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였다. 이어진 오

후 시간에는 지세포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묵상과 말씀 나누기를 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가톨릭 문학 제17호'를 특집으로 구성하여 교구 설정 50주년 '기쁨과 은총의 삶'의 실천 사항과 관련된 작품을 신기로 하였다.

● 교구 여성협의회 1/4분기 상임위원회



교구 여성협의회(회장 이갑순, 담당사제 배기현) 1분기 상임위원회가 3월 10일 교구청 1층 여성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허성학 신부, 배기현 신부와 각 지구 회장단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내용은 2015년 사업 계획에 관한 논의와 여성협의회 카페 '나날이 기쁜 날'의 활성화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구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2분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 교구 여성협의회 임원 중 감사 2명(김연숙, 안쌍덕)을 새롭게 선출하였다.

● 가톨릭 농민회 열린 강좌



가톨릭 농민회(회장 정용우, 담당사제 박창균)는 3월 9일과 3월 16일 반송·호계 성당에서 창원·마산지구 열린 강좌를 실시하였다. 열린 강좌는 매년 지구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농 도시 생활 공동체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과 신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열린 강좌는 창원지구와 마산지구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으며, 창원지구(반송성당)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마산지구(호계성당)는 EM 비누·삼푸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거제지구는 3월 23일 대건성당에서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가 실시되었으며, 진주지구는 4월 6일 금산성당에서 EM 비누·삼푸 만들기 강좌가 실시될 예정이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제단체 임원연수회와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천주교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우원주)는 5월 16일(토)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

수회를 가졌다. 먼저 '역사에서 배우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옥현진 주교의 특강과 '신앙인의 삶'이라는 주제의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의 특강이 있었다.



교구평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평협과 7대 종단이 함께 펼치고 있는 평신도 실천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먼저 '답게 살겠습니다'의 취지를 설명하고 선언문과 실천사항을 함께 낭독하여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에 맞게 '답게 살겠습니다'의 의지를 다짐했다.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제41차 정기총회 광주개최



천주교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

(위원장 홍순덕, 담당사제 우원주)는 4월 13~15일 2박3일 예수고난회 광주 명상의집에서 전국 여성협의회 임원 8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제33차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신 김희중 대주교의 개막미사와 강의가 있었고 세계 여성연합회 총회 참석 보고가 있었다. '화해와 일치'라는 주제의 강길웅 신부(광주대교구 원로사제)의 열띤 특강의 시간을 가진 후, 순교자기념성당으로 지정된 나주성당과 영광성당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제41차 정기총회에서는 교구별 임원 소개와 활동 보고가 있었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 광산지구와 순천지구 평협 나눔 한마당 잔치



광산1지구평협(회장 최봉우, 지구장 서달원 신부)은 4월 19일 비아초등학교에서 지구 내 9개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과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본당의 장기자랑과 체육대회로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다.

순천지구평협(회장 황선호, 지구장 표양권 신부)은 5월 9일 순천

왕지초등학교에서 지구 내 사제, 수도자와 각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나눔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화합의 시간들이 되었다.

● 꾸르실로 차수 올드레아



꾸르실로 사무국(주간 도상구, 담당사제 박상선)은 5월 16~17일 명상의 집에서 차수 올드레아를 개최하였다. 1차부터 25차까지의 남녀 수료자를 대상으로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거 3박4일간의 꾸르실로를 회상하며 이상·순종·사랑의 꾸르실로 정신을 재다짐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운전기사사도회 제26차 창립기념일 행사



운전기기사사도회(회장 황철석, 담당사제 천정철)는 제26차 창립기념일을 맞아 5월 20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우수회원을 표창하였다. 운전기사사도회는 광주와 목포,

순천에 각각 지부를 두고 있으며, 160여 명의 회원들이 차량을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가톨릭
농민회

● 가톨릭농민회 창립 50주년 준비 박차...

2016년 10월 17일(월)은 가톨릭농민회 창립 50주년이다. 이에 따라 가톨릭농민회는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기 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조직과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50년사 편찬 및 영상물 제작, 종합적인 조직발전계획 수립과 가톨릭농민운동의 전망 제시,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작은 행동' 전개



올 한 해 가톨릭농민회는 본회의 가치와 입장을 일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작은 행동'을 전개한다. 3월 12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약 한 달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행동을 다짐하는 페이스선언을 진행했으며, 5월 1일(금)부터 7월 31일(금)까지 '생

명농산물 이용 다짐 및 교회 밥상 바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가톨릭농민회 · 우리농 전국도시생활공동체협의회, 전국도농협력모임 개최



천주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두 축인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 전국도시생활공동체협의회는 5월 14일(목) 대전 유성에서 2015년 전국도농협력모임을 열고 생명농업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직거래, 무농약 이상 잡곡 직거래와 과수 가농(자체)인증을 위한 도농 산지 점검반 활동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2015년 성령강림대축일 전국 봉사자 피정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5월 23일(토)~24일(일), 1박2일 동안 전국 봉사자 피정을 가졌다.

2015년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아 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피정으로, 장소는 서울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로 하였다. 성령강림대축일에는 각 교구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므로 봉사자들 전원이 참석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131명),

은혜로움 속에 성령 충만의 기쁨을 맛보았다.

● 2015년 전국성령대피정 개최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는 3월 15일(일)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2015.전국성령대피정)을 가졌다.

《깨끗한 그릇에 하느님의 은총을!》이라는, 피정 주제와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이사 44,22). 말씀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린 날. 전국 각지의 가톨릭 신자들과 사제들, 그리고 성령새신 회원들이 꽃동네 특별 피정센터에 모였다.

강사로 초대된 안동교구의 이춘우 신부와 꽃동네 오웅진 신부의 강의는 3,500여 명의 신자들에게 축축한 단비가 되고 일침의 회개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2015년 제47차 정기총회 및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2015년 3월 21일과 22일 세종시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김평만 대표담당사제

와 110여 명의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정기총회 및 피정을 개최하였다.



첫날 피정에서는 ‘신앙인의 사랑과 나눔 실천을 통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주제로 김석태 신부와 정운광 신부의 특강이 있었으며, 둘째날 총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고영진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총회 및 피정은 청주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주관으로 2016년 3월 12일과 13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제32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10일(화)~11일(수) 서울 한남동 끈벚뽕알 피정의 집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봉사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총

회와 회장단 피정을 개최하였다.

행사 첫날에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한국평협 유명훈 스테파노 사무국장의 강의와 함께 부산교구 선교회 유군자 수녀의 지도로 나눔 및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각 교구 선교회 임원들이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둘째 날 총회에서는 사업 및 예결산 승인, 감사 선출이 있었는데, 감사에는 서울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우종명 프란치스코, 임지빈 에우켈리오 감사가 선출되었다.

● 2015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아 피정



5월 20일(수)~21일(목) 대구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한티 피정의 집(경북 칠곡)에서 전국 레지오 마리아에 피정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교구 선교회 소속 레지오마리아에 단원과 일반 회원, 봉사자 157명이 참석하였다.

첫날에는 지역별 레지오 마리아 활동 보고와 기도예 이어 ‘순교영성’이라는 주제로 마백락 클레멘스 영남교회사연구소 부소장의 강의

가 있었다.

둘째 날은 찬양과 신앙체험 나눔, 대구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이종호 신부의 강의에 이어 담당 사제 배용우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제57차 한국 가톨릭 학교장회 정기총회 개최 및 연수



한국 가톨릭 학교법인 연합회 주관으로 제57차 정기총회와 연수가 지난 5월 20~22일, 제주 함덕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15 가톨릭 학교장 연수와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가톨릭 교육 이념에 따른 복음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전인적 교육을 실현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매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년도 정기 세미나 제목은 ‘가정과 교육’으로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에서 60여 명이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 김영장 신부를 회장으로 유임시켰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한국ME, 상반기 중 ME주말 68회, 디퍼주말 2회 실시



부부 간에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하여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3일간 실시되는 ME주말은 올해 1~5월 전국 17개 교구/지역에서 5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 2015년도 한국ME 상반기 총회 개최

한국ME는 2015년도 상반기 총회를 지난 2월 28일~3월 1일의 1박 2일로 서울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고 한국ME가 2015년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교구별 사업실적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17개 교구 지역협의회 대표와 상임위원회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15년도 한국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목자로 부르심’으로 하기로 정했다.

이를 위하여 ‘혼인과 사제직의 가치를 교회와 세상에 선포한다.’는 선교사명을 실천하는 데 모든 임원 대표와 상임위원들이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ME 발표팀 교육

한국ME 대표팀(이제민+윤봉희 부부, 최준웅 신부)은 전국 17개 교구, 지역 ME 발표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중 1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주요 지역에서 1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450여 발표 부부가 참석하였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배론성지순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 수녀)는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배론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중앙임원 12명과 일꾼 분의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를 봉헌하고, 제2차 중앙이사회도 실시하고, 도미니코 봉쇄수도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오로지 하느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신도 양서

정리
신동수 편집위원



생활성서사 편집부 지음
생활성서사
126×188, 336면
13,000원

이 시대 성자에게 행복을 묻다

이 책은 마더 테레사, 토머스 머튼, 김수환, 이태석 등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에 주저없이 '네!'라고 응답한 이 시대 영성이 13인의 삶을 담고 있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된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다간 이들의 삶이 참행복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R. 스콧 허드 지음
신현숙 옮김, 바오로딸
140×200, 192면
10,000원

용서가 어려울 때

이 책은 신앙인으로서 용서는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타인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 기도, 미사, 성사, 성찰 등을 통해 용서의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진정한 용서를 원하지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보다 먼저 '용서의 여행'을 가 본 사람들의 감동적 체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을 받게 해 주는 책이다.



유수인 지음
가톨릭출판사
127×188, 292면
12,000원

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부부

이 책은 첫 만남부터 성가정을 이루기까지 결혼 10년차 부부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치유와 성장 에세이다. 이 부부가 결혼 후 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연애 중'임을 공표할 수 있는지가 이들 부부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잘 담겨 있다. 행복한 성가정을 꿈꾸고 있다면, 이 부부를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름트라웃 타르 지음
황미하 옮김, 성바오로
148×210, 240면
12,000원

의미의 숲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더 잘 알기를 바란다. 또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이렇듯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자아실현을 꿈꾸고 가치와 신념을 지향한다. 이 책을 읽고 계속 반추하면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